금주의 법구-〈아함경〉
너 자신을 등불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삼고 의지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5호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다보탑 난간 이탈… 강진에 聖寶 '휘청'

9월 12일 경주 5.8 강진
문화재 97건 피해 보고돼
불교문화재 피해는 33건

피해 보고 오류 · 사각 존재
기림사 소조불 불단 훼손 심각
보물 문화재 2차 피해 우려도

현장에선 복구 · 계측 한창
긴급복구비 23억 원 지원
세심한 모니터링 등 필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으로 경주 인근 경상권 문화재 보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국가지정 · 시도지정 · 문화재 자료 등을 포함한 문화재 97건에 대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34%인 33건의 피해가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내 국보 제20호 다보탑의 난간석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석굴암은 입구에 낙석이 생겨, 9월 12일 밤사이 긴급 복구가 이뤄졌다. 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에는 마애불의 지반 침하와 요사채 지붕 기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주 인근 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재도 피해가 속출했다. 양산 통도사는 대웅전과 극락보전에 균열이 생겼으며, 청도 운문사의 보물 제678호 삼층석탑은 상륜부가 탈락됐다. 군위 제2석굴암의 전각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석남사는 담장 회벽에 균열과 전각 기와가 떨어졌으며, 경산 선본사도 전각의 기와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보물 제173호 울주 망해사지 승탑은 승탑 탑신부 옥개석에 일부 피해가 생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규모와 상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본지가 경주 현장을 찾았을 당시 분황사 모전석탑은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황사 관계자는 "모전석탑 균열은 지진 전부터 있었다. 왜 지진 피해로 알려졌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분황사에 조사를 나온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역시 "현재 분황사 모전석탑의 균열은 지진 전에 이미 있었던 균열이며 현재 새로 생긴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균열 확장 조사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중점관리 대상이여서 현재 계측 중"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안전진단 조차도 받지 못한 문화재도 있다. 불국사 말사 기림사는 대적광전의 내벽 균열과 보물 제958호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이 놓여진 대적광전 불단이 30cm 가량 내려 앉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삼존불상을 받치고 있는 불단이 지진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불상 가운데 비로자나불은 왼쪽으로 기울었으며 왼편에 위치한 약사여래불은 아래쪽으로 불단과 함께 내려앉았다. 또한 불상의 크기로 인해 보수 공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은 "아직 안전 진단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부처님이 소조로 조성되어 무게가 엄청나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단이 지금보다 더 훼손되면 보물인 불상과 대적광전 그리고 뒤에 있는 후불 탱화도 함께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지난 9월 19일부터 문화재청 소속 직영사업단 34명을 피해현장에 급파하여 피해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복구에 들어갔다. 문화재 돌봄사업단 80여 명도 경주 현장에서 기와 교체 등 복구작업과 함께 모니터링 등 피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긴급복구비 23억 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조계종 역시 지진 발생 직후부터 빠르게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74건의 사찰 피해를 문화재청에 알렸다. 또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주요 사찰 40여 곳에 대한 피해 조사와 진단도 진행했다.

이용윤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팀장은 "우선적으로 기와나 담장이 파손된 17곳의 사찰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2차 피해를 입었던 사찰의 전각, 담장, 벽체 훼손들 모두 복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불국사를 방문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은 피해상황을 보고 받으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지진 피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100%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보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까지도 정밀히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관련 해설 2면〉



9월 20일 불국사 다보탑에 대한 정밀 계측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 뒤편의 점선 부분이 9월 12일 지진으로 탈락된 난간석이다. 경주 불국사=하성미 기자

불교문화재 지진 피해 상황

문화재명	종 별	피해내용
불국사	국보 제20호	다보탑(국보 20) 난간석 접합부 탈락
	보물 제1744호	대웅전(보물 1744) 지붕 및 담장 기와 일부 파손
	사적 제502호	대웅전 용마루 파손, 관음전 담장기와 일부 파손 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 등
석굴암	국보 제24호	일주문에서 석굴암 진입로 낙석
단석산마애불	국보 제199호	보호각 지지대 하부 균열
양산 통도사	국보 제290호	대웅전, 극락보전 등 일부 균열
경주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국보 제312호	마애불 지반침하, 요사채 지붕기와 파손
천군동 동·서 삼층 석탑	보물 제168호	동서탑 상륜부 파손
울주 망해사지 승탑	보물 제173호	승탑 탑신부 일부 피해(옥개석)
울주 석남사 승탑	보물 제369호	담장 회벽 균열 및 기와 탈락, 건물 기단부 균열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	요사채 균열, 대웅전 기와 일부 파손
표충사 삼층석탑	보물 제467호	담장, 사천왕문, 종무소, 수선당 기와 일부 파손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514호	원통전 지붕파손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보물 제539호	담장 균열, 숫마루장 2장 유실, 와구토 탈락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78호	동탑 옥륜부 이탈, 서탑 기움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보물 제805호	산신각 기와 10장 가량 탈락 후 파손
기림사 대적광전	보물 제833호	대적광전 벽체 일부 균열 발생
대비사 대웅전	보물 제834호	공양간 지붕 기와 일부 파손
운문사 대웅보전	보물 제835호	오백전, 전향각 외부담장 파손
청도 대적사 극락전	보물 제836호	요사채 지붕기와 파손
용명리 삼층석탑	보물 제908호	상단 탑신부 박리
신흥사 대광전	보물 제1120호	담장 3개소 일부 훼손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8호	3층 탑신석 이격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1429호	동탑 옥개석 모서리 탈락
창림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867호	옥개석 일부 탈락
남산 염불사지 삼층석탑	사적 311호	삼층 탑신석 이완
금산 보리암	명승 제39호	극락전 하부 토사 유실 및 석축 붕괴 탐방로 계단 일부 유실, 탐방로 난간 파손

현대인에게 희망 줄 간화선 대법회 열린다

오는 10월 15~25일, 대구 동화사서 개최

현대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선지식 초청 간화선 중흥 대법회가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된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정찬 현묵)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이사장 의정)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제2회 간화선 대법회를 개최한다.

간화선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으로 마음수련, 명상 등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행법이 지닌 심신이완 뿐만 아니라 참나의 순수본성을 찾는 삼매 체험까지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불교학계 뿐만 아니라 심리학계에서도 이런 간화선의 심리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화선 대법회는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법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조계사에서 열린 제1회 간화선 대법회에서는 9일간 1만 4000여 명이 참석해 법문을 경청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대법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무여(축서사 선원장), 혜국(석종사 금봉선원장), 함주(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지환(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현기(지리산 상무주암 수좌),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스님이 차례로 법사로 나선다.

한편 간화선대법회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의정, 효광)는 9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수좌회 공동대표인 정찬 스님은 간담회에서 "현재 간화선의 쇠퇴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간화선대법회는 전 세계인의 정신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간화선을 일반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은 "현재 초기불교와 티베트불교 수행이 전 세계 명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불교 수행의 정수인 정혜쌍수에는 미치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등
7인 선지식 나서 힐링법문
영어통역 등 세계화 모색도

못한다. 한국불교 간화선이 조만간 세계 명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스님들은 간화선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임을 강조하며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간화선대법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각산 스님은 "간화선 법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간화선자들의 도움을 받아 동시통역 또한 진행된다. 간화선이 조금 더 체계화 된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한류' 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BS불교방송, 영동지역 방송 송출

FM 104.3MHz…강릉 · 동해 · 삼척 가청권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영동지역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송출한다. 강릉, 동해, 삼척 등 영동지역 불자들은 FM 104.3MHz로 라디오 불교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BBS불교방송은 9월 11일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에서 강릉 BBS불교방송 개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무주 스님 등 지역사찰 스님들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영돈 강릉시의회 의장, 강희문 부의장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했다.

BBS불교방송은 2002년 춘천지방사 개국에 이어 2012년 속초 · 양양 중계소를 건설했다. 이번 강릉방송국 개국은 올해 1월 월정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됐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지역 불자들의 열정이 개국을 이끌어 냈다. 사부대중이 축하할 날"이라고 말했다.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도 "강릉 불교방송 개국으로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방송으로 거듭나게 된 만큼 강원도 전역에서 맑고 향기로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나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어 선상신 사장은 "앞으로도 라디오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소를 확대해 라디오네크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경주 강진이 남긴 과제는

한국도 지진 위험… '문화재 재해法·기금' 화두

석조문화재 20% '위험' 조사돼
대다수가 석탑… 보존 취약해
전문가 "보강 장치 설치" 주장

日 불교 안전 우선해 내진 설비
사찰마다 지진 예방지도 제작도
아오키 교수, 本紙 인터뷰 통해
"문화재 재해법 제정 필요" 주장

기초 연구했지만 정책 반영 無
문화재 내진 시설 논의 필요해
"지진·화재 복합적 대비해야"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한반도가 들썩였다. 특히 불국사·석굴암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산재된 고도인 만큼 90여 건에 달하는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기정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내진장치 연구와 도입,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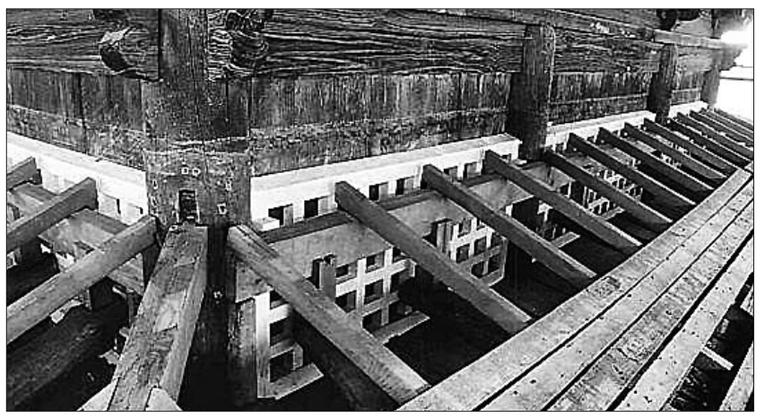
석조문화재는 지진 위험군

문화재청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문화재 지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로 작성했다. 2013년 한국지진공학회가 연구한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석조문화재 20%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진공학회는 연구를 위해 152개소의 석조문화재를 조사했고, 30개의 석탑·전탑·석교를 '위험' 군으로 분류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석조문화재는 2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보통' 등급이었다.

한국지진공학회는 당시 연구보고서에 "경계나 위험구간에 포함된 석조문화재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보수·보강 후 관리 중점대상으로 두고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내진 진단 매뉴얼의 기초 점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연구를 진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두 권의 기초연구 조사와 진단 매뉴얼이 나왔지만, 문화재 내진 설비에 대한 기초적 법령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건축법을 통해 건물 등 9가지 시설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화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사찰을 포함한 한옥도 역시 내진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구조기준에도 목조건축물의 경우 "지진 하중에 견딜만한 강성을 지녀야 한다"고만 규정돼있을 뿐이다.


일본 국보인 기후현 에이호우지 관음당의 내진장치. 목재를 덧대 좌우 진동에 버틸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아오키 시게오 교수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찰을 포함한 목조건축물은 돌로 기단을 쌓아 하부를 받치고 상부에 무거운 지붕을 얹는 구조여서 지진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야외에 있는 문화재 중 통돌로 된 석탑을 제외한 석탑, 모전탑, 석등 등도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보강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우선' 日의 내진 설비

그렇다면, '지진의 나라' 일본의 문화재 내진설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으로 문화재 피해조사를 진행한 아오키 시게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는 本紙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인 건물, 동산인 불상 등으로 대응이 달라진다. 건물에 대해서는 참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반적으로는 내진 진단을 하고 건물이 본래 갖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며 내진보강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가 기술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안전 의식을 가늠할 수 있다. 17세기에 건립된 일본 니이가타현 조코지 본당은 진도 5.0의 지진에도 건물 전체가 기울어 질 수 있다는 진단 하에 건물 전체에 철골 프레임을 설치했다.

내진설비와 문화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군마현 키류시의 히코베가 가옥은 외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벽 내부에 두꺼운 합판을 설치하고, 보강용 철골기둥 겉에 토벽을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아오키 교수가 제공한 자료에도 비슷한 보강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기후현 에이호지 관음당은 목재를 덧대 진동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했다.

지진 대응 인식도 높여야

전문가들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불교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찰의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내진·예측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진영 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시 문화재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과 중요 문화재 건조물 내진진단지침을 정해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년 통합재해예방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지진 발생에 대한 인식부터 고취시켜야 한다. 지진은 반드시 화재를 동반한다. 다양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오키 교수도 "일본은 사찰·마을마다 지진 피해 예상지도와 행정지도가 작성돼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전도 방지 대책과 낙하방지 대책 등을 꾸려야 한다"면서 "정부와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재해 대책의 기반이 되는 기본법 제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기금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문화재 수리, 이젠 가격 아닌 실력으로

문화재청, 21일부터 '최고 가치 낙찰제' 시행

현재까지 사찰 등 문화재 수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가격 중심의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이 아닌 업체의 실력이 문화재 수리 사업의 우선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 시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렵 법규 정비를 진행했고, 공청회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에 따라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하여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약예규 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최적합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부실 수리 방지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공식여론조사 한다

직선제특위, 10월 중 리서치 실시
법계별 표본 1000명 구성, 전화 설문조사 방식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이 선거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종도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 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이하 직선제특위)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직선제특위는 지난 8월 23일 3차 전체회의에서 법계별로 직선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특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두차례 있었다. 2008년 불교사회연구소 직선제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2015년 대중공사의 직선제 여론조사는 대중공사 회차별 중복참여가 가능한 즉석리모콘 투표가 진행돼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리서치회사에 의뢰하는 것을 골자로 법계별 표본을 무작위 추출, 이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표본 추출범위는 직선제 선거권자로 가닥이 잡힌 법랍 10년 이상 비구·비구니 스님으로 총 8000여 명이다. 현재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각각 4000 여명인 상황에서 동수인 500명씩이 법계별 구성에 따른 비율로 표본으로 추출된다.

여기에 법계별 인적구성에 따라 표본이 추출될 예정이다. 표본 추출은 법계내 무작위로 진행되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위원장 태관 스님은 "지난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대중공사에서의 여론조사는 재가자 의견이 대량 포함된 반면 정작 선거권자인 스님들의 의견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선거권자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종헌이 개헌돼야 하는데 나라에서도 개헌시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 반영한다. 최소한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종단이 대중의 뜻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해 한다는데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목종 스님도 "이번 기회에 종단 스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선제특위에서는 11월 1일 개회 예정인 종회 상정까지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설문조사 기간이 3주간 진행되며, 이후 분석까지 약 1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종훈)는 9월 22~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주제로 워크샵을 열고 직선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변화에 맞춘 선거관리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노덕현 기자

우희종 교수, 조계종 폄하 발언에 파문 확산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팟캐스트 '쇼! 개불릭'에서 조계종과 한국불교를 비판한데 이어 발언 내용을 묶은 책 〈쇼! 개불릭〉을 펴낸데 대해 불교계 안팎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9월 20일 성명을 통해 "〈쇼! 개불릭〉 전량폐기 및 공개참회를 요구했으며, 미응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한국불교는 변태불교다' 등의 말을 통해 한국불교 전체를 모욕한 우희종 교수에게 실망과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사신도회(회장 김의정)도 우희종 교수의 사과 및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계사신도회는 "특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사태에서의 조계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신도 등의 노력을 폄하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봉 (사)범불교조계종 창종 수계 대법회 및 종도 모집 축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등록번호 : 191321-0001925

불기 2560(2016)년 10월 29일(음, 9월 29일) 토요일

총본산 : 금오산 해인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577번지 / 055-351-3689)

총무원장 **범성 대명** 010-3193-3689

종도 모집 안내

❶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전법사 등록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1부
- 법당사진(내, 외) – 1부 / 사찰 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4매
- 계좌번호 : 농협 351-0902-3064-63 / (사)범불교조계종

❷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전법사,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사)범불교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 관리 감독은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일체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범성 대명

70년 역사 광동학원 '인성교육 선봉장'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 개최해 역사 조명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재불사를 펼쳐온 광동학원이 70년이란 장대한 역사를 기록했다. 현재는 명실상부 경기 북부의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한 광동학원은 이를 기점으로 '인성교육 선봉장'이 될 것을 천명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운허 큰스님이 현 봉선사(경기 남양주) 터에 세웠다. 운허 스님은 1915년 '배달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1919년 독립군정기관지 〈한족신보〉를 발행하고 1920년 독립운동단체 '광한당'을 조직했다. 그리고 스님은 마침내 1946년 봉선사 등 5개 사찰 재산을 규합해 광동중학교의 효시인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1951년 전란 속에 학교가 불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건물이 불타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는 당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지에 따라 민가와 천막 등서 수업을 이어나갔다.

2016년 현재 광동학원은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 광동중학교 총 3개 학교로 구성되며, 졸업생은 총 4만2883명(광동중 1만7500명 · 남양주 광동고 1만2340명 · 의정부 광동고 1만2963명)에 달한다. 특히 남양주 광동고는 체육관 '운악관'과 기숙사 '불천학사'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출 뿐 아니라, 매년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5%에 이른다.

그렇다면 불교종립학교로서 지역의 명문사립으로 자리 잡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들이 하나 된 '일심동체'를 그 비결로 꼽았다.

일면 스님은 "교직원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학생들은 본분에 충실해 학업에 매진한다. 또 동문들은 졸업 후 지역 유지로 자리 잡아 '광동의 자부심'이 돼 준다"며 "특히 불교학교로서 교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힘쓴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면 스님은 1993년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자비심'을 강조한 교훈과 교표를 만드는 등 불교종립학교로서 위상을 바로잡기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 김석희 광동중 교장은 "일면 스님은 3개 학교에 법당 뿐 아니라 교법사실을 설치하는 등 교법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에 3개 학교가 '불교종립 광동학원'이란 이름아래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불교종립'이란 타이틀은 한 때 동문회 및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기관이 지나치게 종교 편향적이 될 수 있단 우려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은 현재 광동학원이 인성교육의 대표주자로 거듭나는 데 크게 일조했단 평이다.

조용기 의정부 광동고 교장은 "광동학원은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거쳤지만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극복, 현재는 인성 · 학업 등 모든 면에서 앞서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동학원은 앞으로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천기 교장은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될 때 학력신장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과목 중 '종교'과목을 통해 윤리와 인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또 선생님과 학생들 간 존칭쓰기를 생활화하며 교사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동학원은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부일정은 △서화전(4~10일) △ 강연회 '운허 스님과 광동 70년'(4일 오후 3시 30분) △영상회(4일 오후 2시) △교직원 및 동문회, 학부모 등 체육대회(8일 오전 9시~오후 3시) △광동학원 역사를 담은 사진전(4~10일) △백일장 '운허 스님과 춘원 이광수' 시상식 등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992년 광동중 교사 증축공사 기공식 현장.


광동학원 설립자 운허 스님(사진 왼쪽)과 정계열 초대교장.

봉선사 등 5개 사찰 주축돼 설립
현재 졸업생 4만3천여명 배출
지역명문 사립학교로 발돋움해
불교 기반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숫자로 본 광동학원 70년

1946년 — 설립년도
4만2883명 — 졸업생 수
2,774명 — 재학생 수
258명 — 현직 교사 수
45% —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

"最古 금속활자본은 증도가, 송광사서 간행"

박상국 원장, 1년만에 재주장… 학계 파장 예고

30일 보조사상연구원서 발표
당시 정혜결사운동의 수선사
역경사업 중심으로 활동 주장
효봉 스님 조명 논문도 발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직지〉가 아닌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이하 증도가)〉이며, 이를 고려시대 수선사(현 송광사)에서 간행됐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사진〉은 오는 9월 30일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선사의 금속활자본 간행'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박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공인박물관 소장 〈증도가〉(보물 758-2호)가 왜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지를 분석하고, 판각처로 수선사를 지목했다.

박 원장은 미리 배포된 논문을 통해 공인박물관 소장 〈증도가〉가 금속활자본인 이유로 △광곽 △농박도 △활자의 움직임 △보사자 △가필 △쇠똥자국 △철편 등을 다시 제시하고 1년전 지적들을 다시 재반박했다.

광곽에서 제기됐던 "고려시대 당시 중앙정부의 금속기술이 광곽용 금속편을 고르지 못하고 만들 수 밖에 없던 수준은 아니었다"는 반론에 대해 박 원장은 고려시대 정부는 금속활자를 주조한 적이 없으며 당시는 강화 천도 시기였음을 상기시켰다.

이를 토대로 박 원장은 "서지학계 추론대로 1234년 이전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면, 최충헌이 상정예문을 간행하지 않았을리 없다. 금속활자 주조는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했을 뿐이며 〈증도가〉는 수선사가 주도해 최초로 성공한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 목판인쇄의 전통은 13세기 새로운 선종운동을 펼쳤던 수선사로 이어져 당시 많은 선종서적이 간행됐다. 마침내 1239년 금속활자를 이용해 〈증도가〉를 송광사서 인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금속활자 인쇄는 짧게 반짝이다 목판인쇄로 회귀했고, 조선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박상국)이 개최하는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을 조명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한 내년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앞서 축하하는 의미도 담겼다.

'수선사 보조국사와 송광사 효봉'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가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효봉의 전법계보와 보조 가풍의 계승'을 발표한다.

또한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다시 생각해보는 돈오점수론'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는 '효봉 스님 그리고 지눌을 공부다(學訥)'를, 법산 스님은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평창 월정사 황혼기 출가학교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문수선원에서 60세 이상 불자들을 위한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진행한다.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는 출가를 꿈꾸지만 결정을 망설이는 고령자들이 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는 입학고불식을 시작으로 사찰예절 및 발우공양 습의, 적멸보궁참배,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 108염주만들기, 주지 스님 특강, 서로 붓다되기, 서대 참배 및 오대산 순례, 나의 붓다그리기, 다람쥐 제사 관람, 유언장 쓰기 등 고령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스님, 국민연금 가입율 20% 수준

조계종 승려복지회 가입 촉구에 나서… 11월말까지 지원 신청 접수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본격 나설 방침인 가운데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본사 등과 협력해 국민연금 가입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조계종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톨릭과 원불교 등 이웃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불교계에서는 이익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시점부터 평생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물가변동도 반영된다. 2011년 원광대의 조사에 따르면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82세로 직업별 평균수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즉, 국민연금 수령 기간이 일반인들보다 긴 것이다. 이에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의 기본체계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비경제활동군보다 월 납입액도 작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로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월평균소득은 조계종과 국민연금공단의 협의를 통해 월 40만원으로 산정됐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가정주부가 99만원으로 계산하여 월 891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이 금액 조차 201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다.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1만 8000원에 이어 2019년부터는 전액인 월 3만6000원을 지원한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지원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교구본사와 힘을 합쳐 스님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차문화를 한자리에

차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2016명원세계차박람회(이하 세계차박람회)가 개최됐다. 세계차박람회는 9월 20일 서울 COEX B홀에서 개막식을 열고 4일 간 이어지는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김의정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전통 차 문화와 차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다"며 "이번 박람회는 차 문화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박람회를 통해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와 차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날 개막식에서는 '명원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수상자로는 공로상에 공재성 대구MBC 국장, 학술상에 유양석 국민대 교수, 교육상에 이정민 명원문화재단 대구6지부장이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1371(2016)주년 영축문화축제 행사 일정표

일자	시간	장소	주요내용
9월 19일 ~ 10월 10일		도량내	오색초롱등 장엄
9월 26일 ~ 10월		도량내	국화 장엄
9월 29일 ~ 10월 16일		총림문 ~ 박물관	양산 축제
10월 1일 ~ 10월 17일		보행로	괘불 대전
10월 2일	10시	해장보각	세미나 - 통도사 개산대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
10월 8일	09시	산문주차장 의식 → 보행로 → 일주문 → 괘불대	괘불 이운
	10시 30분	괘불대	괘불 헌공
	13시	박물관	괘불 특별전
	14시	부도전	부도 헌다례
	15시	부도전	들차 시음회
10월 9일	09시	해장보각	영고재
	10시 30분	설법전	봉축 법요식
	11시	설선당 앞 마당	만발 공양
	13시	설선당 앞 마당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녹색불교아카데미

법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스님은 10월 12일~12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불교여성개발원서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연다.



사하불교 불자의 밤

혜우 부산사하불교연합회장 스님은 10월 7일 오후 6시 약수사서 '제4회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을 봉행한다.



이웃사랑 실천 봉사협약

장곡 대전서구노인복지관장 스님은 9월 9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와 지구회관서 '이웃사랑 실천' 봉사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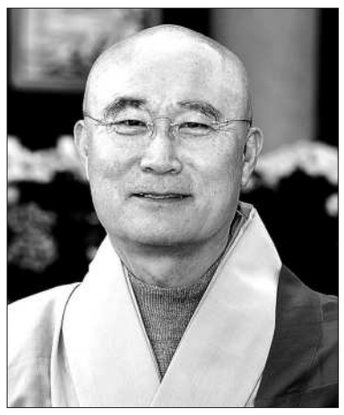


불교공뉴스 6주년 기념식

혜철 불교공뉴스 대표이사 스님은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 옥천군 명가웨딩홀서 '불교공뉴스·TV 창간 6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어린이포교 덕에 33년 佛緣"

창건 33주년 맞은 삼보사 주지 지원 스님



80년대 초 인법당 포교로 시작
어린이·청소년 활동 매진해
불교 세대전승 효과 얻어

"33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긴 시간동안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다 삼보사와 인연을 맺은 어린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역촌동 삼보사가 창건 33주년을 맞았다. 삼보사는 이를 자축하기 위해 9월 25일 경내서 신도들과 소소하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지원 스님〈사진〉은 본지 인터뷰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이어졌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33년간 삼보사를 이끌어온 지원 스님은 1980년대 초 10·27법난과 종단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사회가 불교로부터 등을 돌리던 시기,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평구는 서구식 주택단지가 대거 형성되면서 신개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기성세대 포교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포교가 절실하다고 느낀 스님은 불광동(佛光洞)에 임시법당을 마련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도심지역 전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곳이 은평구였죠. 불광동은 또 부처님 광명이 비춘다는 이름처럼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린이·청소년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해 전단지를 돌리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원 스님이 법당을 처음 짓고 찾아온 사람은 20명 남짓이었다. 아이들은 전무했다. 이에 스님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포교전략을 세웠다. 한강의 기적에 따라 물질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던 그때,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소위 '대박'이었다.

"2명이던 아이들이 4명으로, 또 10명으로 늘었죠. 아이들 인성이 좋아지니 부모도 찾게 되고, 더 많은 가족들이 법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고 함께 108배도 하면서 인내심을 길렀어요. 그러자 초등학생은 100명, 중고등학생은 120명 정도 절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포교로 성황을 이룬 삼보사는 인법당에서 전세방으로, 그리고 3년 만에 현 삼보사 터를 얻어 이전했다. 이제는 당시 절에 나왔던 아이들이 중장년이 돼 자녀들을 데리고 법회에 나온단다. 덕분에 유아법회도 봉행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자모회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렇듯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2가지. 아이들에 대한 지원 스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초하루 기도·인등비다.

"단 1명이라도 정성을 다해 포교하면 아이들은 감동을 느낍니다. 가슴에만 담아두고 부모에게 하지 않는 고민도 스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고요. 기도비 등을 그 시절 금액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도 이런 인연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젊었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포교만큼은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10월 5일 창건된 삼보사는 더 많은 이들과 33주년을 기념하고자 10월 22~23일 행사를 연다.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산신재 기도, 오후 5시에는 주제가 있는 국악공연을 펼친다. 또 23일에는 서울강북지역 동남아 4개국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 양주 도리산 단풍맞이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352-6406 **윤호섭 기자**

현역·예비역 군승 한자리서 정진

조계종 군종교구, 군승안거 및 수련회 실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0~22일 평창 월정사서 '불기 2560년 하계 군승안거 및 수련회'를 실시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140여 현역군승과 60여 예비군승이 참여한 안거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현안토의 △발전방안 모색 △독서토론 △설법문안 발표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4대 종교 축제, 전북서 성료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5일간 펼쳐져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9월 20~24일 전주·익산·김제·완주·진안 등 전북지역서 펼쳐진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염원한 이번 축제는 첫날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종교열린마당과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어울마당, 닫는 마당 등 총 여섯 마당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지원환자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 김준경·최정수 씨에 총 1573만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9월 12일 8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된 김준경·최정수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엔 생명나눔 이사 현조 스님, 최정수 씨와 보호자가 참석했다. 거동이 불편한 김준경 씨는 정지영 인천성모병원 사회복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폐결핵 및 기흉 환자 김준경(가명·43) 씨에겐 생명나눔 소식지를 통한 모연금 300만원과 BBS '거룩한 만남'을 통한 모연금 647만원을 전달했으며, 상세불명의 무형성빈혈 환자 최정수(가명·46) 씨에겐 '거룩한 만남'을 통한 626만원을 전달했다.

이사 현조 스님은 "긴 치료기간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금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월간 소식지와 BBS '거룩한 만남'을 통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 치료비를 모금, 매달 지원 환자를 선정해 모연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명성 스님 출가 65주년 소설 봉정

운문사, 9월 20일 〈구름속의 큰 별 명성〉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9월 20일 법계 명성 회주스님 출가 65주년 기념 평전소설 〈구름 속의 큰 별 명성〉 봉정식을 경내 선열당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함께했다.

명성 스님은 "1970년도 운문사에 온 후로 46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 생각한다"며 "〈불치신경〉에 '욕교여 선자교', 남을 가르치고자 하면 먼저 자신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명성 스님 일대기 책에선 스님이 운문사에 온 후 40여 년 간 '한국 대표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일으키기까지 혼신의 힘을 쏟았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이·취임

9월 22일, 이금석 제 4대 회장 임명장 받아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이금석 제4대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9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서 이금석 4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도권 불자들의 개별적 신행을 종단 차원 신도조직으로 아우르는 직할교구신도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선봉에 서서 신도 역량을 강화하고, 교구 내 사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소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할교구사무처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은 이 회장에게 임명장 전달 후 "직할교구신도회가 신도종책의 근간을 담아내고 실천하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200여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인류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전법하고 포교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우리동네 골목에 꽃 피었어요!"

마천사회복지관, 정신여고와 벽화그리기



마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시형)은 9월 10일 정신여고 디자인동아리와 함께 지역 내 노후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마천사회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상인 산성경로당 및 인근주택서 이뤄졌다. 주제는 책 〈팥죽할머니와 호랑이〉서 착안해 노인의 지혜를 표현한 그림으로 표현됐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가을빛 내린 山寺, 축제로 들썩인다

가을맞이 전국 사찰 문화축제

긴 명절연휴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알린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만나게 될 단풍을 기대하며 명소 찾기에 여념이 없다. 깊어가는 가을, 산사는 다양한 문화축제로 곳곳에 행복을 물들이고 단풍을 맞이한다. 가을정취를 더하는 산사축제서 가족의 정(情)을 다져보자.

동화사 승시축제(10/1~5)

조선시대 팔공산 일대서 열린 스님들의 장마당을 재현한 승시(僧市)는 전통계승과 불교문화대중화라는 목표 아래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청빈한 삶을 살았던 스님들의 모습을 오늘날 재해석해 지역문화축제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5가지 주요행사와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한다. 먼저 의전행사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 어울리는 개막 축하공연은 1일 오후 4시 대불앞 대공연장서 개최된다. 서문탁 · 아웃사이더 · 박현빈 · 적우 · 채리나 등이 초청가수로 무대에 올라 팔공산 일대를 흥으로 달굴 예정이다. 이후 평화행복의 등을 밝히며 본격적인 승시의 시작을 알린다.

스님과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기는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차 미팅'은 1~3일간 오후 3시 설법전 및 경내 일원서 펼쳐진다. 또 짚신을 신고, 걸망을 지며 옛 승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짚신신고 걸망메고'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코스는 동화사에서 부인사까지다.

승시 최고의 볼거리로 손꼽히는 승가씨름대회는 2일 오후 2시 특설씨름장서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스님들이 씨름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아울러 삼천대천세계에 웅장하게 울려 퍼져 중생의 번뇌를 잊게 하고, 일심을 깨우치게 하는 승가 법고대회는 3일 오후 5시 대공연장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불교문화체험(목탁 · 달마그림 그리기 · 사경 · 등 만들기 · 사찰음식)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양초만들기 · 한지공예 · 꽃편지) △전통문화체험(침선과 다듬이 · 도자기 만들기 · 한국의 소리) △다문화체험(인도 · 티베트 · 몽골 · 스리랑카) △전시마당(인악당 의첨대사 특별전 · 서각전시 특별전 · 가을국화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053)980-7956

화엄사 화엄음악제(10/14~16)

지리산의 자연과 구례 화엄사의 활발발한 공간서 세계 각국 아티스트들이 전하는 진솔한 음악의 장, 화엄음악제가 올해 11회를 맞았다.

화엄음악제는 지난 10년간 '장엄하게 피어나는 영성의 꽃'을 의미하는 화엄에 맞춰 음악과 인간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운 가치를 모색하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올해 역시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대거 초청했다.

이번 음악제는 '알아차림'을 주제로 △대한민국 레게 드림팀 노선택과 소울소스 △포크 혼성듀오 김사월 · 김해원 △크로스오버밴드 주스 프로젝트 △기타리스트 박석주 △안무가 전인정 △남성국악트리오 앙상블 나무 △가야금연주자 박경소 △거문고연주자 허윤정 △보컬 · 미니멀댄서 홍신자 △다국적연주자 젠 슈(Jen Shyu) △재즈드러머 사이먼 바커(Simon Barker) △리코더연주자 에릭 보스그라프(Erik Bosgraaf) △보이스퍼포머 파티마 미란다(Fatima Miranda) 등이 출연하며, 총감독은 작곡가 원일 씨가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화엄음악제 홈페이지(hwaeommusic.com)서 확인할 수 있다. (02)3445-5352

전등사 삼랑성 역사문화축제(10/8~16)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1년 시작된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가을을 대표하는 지역축제 중 하나다. 올해 주제는 '천년의 대화'.

행사는 8일 오전 삼랑성 미술대회 및 글쓰기대회에 이어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이 열린다. 이후 가을음악회에 홍경민 · 이영현 · 손승연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가을밤을 명곡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9일에는 전등사 역대조사 다례재와 영산대재가 진행되며, 15일에는 처용무 · 포구락 · 배뱅이굿 등 공연을 선보이는 강화문화한마당이 펼쳐진다. 16일에는 마당극단 '좋다'가 故 권정생 작가의 동화 '강아지똥'을 연극으로 재연한다.

이외에도 축제기간동안 현대 중견작가들이 자연 · 우주 · 인생 · 성찰을 그림으로 표현한 '천년의 대화' 전, 전등사 소장 그림을 선보이는 '어울림' 전, 40대 작가들이 역사적 시간과 동시대의 대화를 표현한 '시간의 대화' 전 등이 이어진다. (032)937-0125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9/30)

매년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여는 분당 대광사는 올해도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경내서 문화체험행사 일환으로 전통한복 입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의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오후 5시부터는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 장기자랑,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및 새터민예술단 공연이 진행된다. 예술제 메인행사인 음악회에는 가수 김태우 · 알리 · 홍서범 · 우연이 등이 출연한다.

아울러 대광사는 부대행사로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와 먹거리 행사, 부처님오신날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 등도 계획했다. (031)715-3000

관룡사 마음나눔 콘서트(10/3)

창녕 관룡사는 개산 1667년을 기념해 '제4회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서 점안불공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법문이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는 혜민 스님 마음나눔 콘서트, 음악나눔(청공중창단), 보시나눔(행복드리미) 등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관룡사 측은 "절망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단 하루만이라도 희망과 위안의 하늘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회를 봉행한다"며 "아울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마음나눔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055)521-1747

홍법사 개산 13주년 행사(10/16)

부산 어린이포교를 대표하는 도량인 홍법사는 개산 1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16일 오전 10시 대광명전서 삼존불 복장봉안법회를 봉행하며, 잔디마당서 '부 · 경 · 울 어린이 청소년 전법단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연계해 이날부터 11월 20일까지 '제5회 홍법사 가을국화축제 및 한국사찰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051)508-0345



대구 동화사서 진행되는 옛 스님들의 장터 승시. 스님이 손수 만든 염주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문화축제 일정

사 찰	축 제 명	일 정
봉화 청량사	청량사 산사음악회	10월 1일
서울 봉은사	1222주년 개산대재 및 불교문화축제	10월 1~9일
구미 도리사	개산 1599주년 아도화상 헌향재	10월 3일
양산 통도사	개산 1371주년 영축문화축제	10월 8~9일
평창 월정사	제13회 오대산 문화축전	10월 8~16일
부산 범어사	1337주년 개산대재	10월 13~15일
의성 고운사	천년솔향 아동 · 청소년 문화제	10월 15일
영천 은해사	역대조사 다례재 및 중악은빛음악회	10월 15일
김제 금산사	1417주년 개산대재	10월 22일



지난해 구례 화엄사서 열린 제10회 화엄음악제. 천혜의 자연 품에 안긴 사찰과 특설무대, 운집한 사부대중이 장엄한 멋을 연출한다. 사진제공=화엄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가 무형문화재 제 50호 및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6·25 참전 용사 위령 영산재, 뉴질랜드 시연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2015년부터 '6 · 25참전 16개국 참전용사 위령 영산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바친 뉴질랜드 용사들을 위한 위령재를 준비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비에서 펼쳐질 영산재 시연에 애정 어린 관심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평화를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며 동참자를 모집합니다.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16년 10월 10일 ~ 10월 15일 (4박 6일)
● 장 소 :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비
● 문 의 : (사)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 (02-392-3008)

(사)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회장 석 선 암

10월은 노인의 달, '활기찬' 어르신 세상!

가수왕 선발대회 · 락 축제 등 신나는 노인축제 '다채'

"더 이상 젊은이들의 공연에 박수만 치지 않겠다!"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 불교계 산하 복지시설서 마련한 노인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도 신명난다. 노래자랑은 물론이고 걷기대회, 가을운동회, 바자회 등 '아직 청춘'인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뛰노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그 중 수도권에 위치한 복지관 행사 몇 선을 소개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노인의 날과 개관 13주년 기념 '2016 행복나눔 희망광진 한마음대축제-9988 해피투게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10월 6일 오전 11시~오후 5시 광진광장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참여마당 및 놀이마당과 함께 △주민가요제 '제6회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 △가수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지역사회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어르신 및 직원들을 선정 · 수여하는 한편, 지역 내 조손가정 손자녀 5명을 위한 '해피투게더 장학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02)466-6242

천태종복지재단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세)은 10월 10일 오전 10시~오후 1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시니어락(樂) 축제'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르신 상호 간 결속력 증대 및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엔 1200여명 어르신 및 지역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문화공연(시설직원 댄스 · 삼룡사 합창단 · 한국체대 응원단 · 퓨전국악 · 가요 등) △기념품 및 점심 도시락 제공 △이벤트 부스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이벤트 부스에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지방 및 혈압, 치매 등을 검진할 수 있는 건강코너를 비롯해 △전통놀이(딱지, 제기차기, 구슬치기, 투호 등) △기타체험(네일아트, 다트, 단주 만들기)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02)999-9179

송파복지센터는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14~28일 총 15일간 '제7회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 공감'을 개최한다. 이는 후원행사로, 목표 모금액 3800만원은 △옥상 일광욕실 마련 △센터 내 LED 등 교체 △데이케어센터 운동기구 마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불교계 복지시설, 노인의달 맞아
新노년상 정립 및 세대통합 위한
'각양각색' 어르신 축제 선보여

세부일정은 △우리 동네 착한가게, 미니바자회(14~15일 오전 10시~오후 4시) △꿈드림, 마음드림(18~28일) △돼지꿈 기부릴레이(18~27일) △국화전(18~30일) △동네 포럼 '그대 왜 꿈꾸지 않는가!'(27일 오후 4~6시) 등이다.

이 행사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며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 · 송파복지센터가 주관, 불광사 및 불광법회가 후원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0월 2일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서울 교동초등학교 운동장서 '다 같이 가을운동회'를 실시한다.

약 150명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사전공연, 미니게임, 점심식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등 단체게임으로 진행된다. (02)6220-8500


지난해 11월 1일 개최된 서울노인복지센터 가을운동회 모습.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노인의 달을 맞이해 10월 13일 제3회 신노인문화 인식개선 걷기대회 '10월의 어느 가을날 종로를 품다-세대공감편'을 개최한다. 올해는 최근 심화되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주제로, 1000여명 어르신들이 청춘을 응원하는 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들고 조계사~광화문~교보문고~종각역~조계사를 행진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젊은 세대를 응원하는 만큼 어르신들의 참여 열기가 이전보다 뜨겁다"며 "이 행사를 통해 '세대갈등' 대신 '세대공감'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지언)은 10월 7일 오후 2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 극장서 '고양노인문화축제-은빛 열정, 아름다운 공연'을 개최한다. 이는 일산 · 덕양 · 대화 노인종합복지관 3개 노인복지관이 연합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1000여명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노인의날 기념 퍼포먼스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 △어르신 발표회(9팀) △가수 및 비보잉 팀의 특별 공연 등으로 꾸려진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이번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이 확산되고,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31)919-8677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새로운 노년상을 정립하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통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9월 26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북한산 큰 숲, 은평 어르신 한마당'을 실시했다.

1000여명 참가자들은 이날 벨리댄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및 2부 가수 이은하의 축하공연, 어르신 발표회 등 함께했다.

이 행사는 (사)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 역촌노인복지관, 갈현노인복지관, 응암노인복지관, 불광노인복지관, 신사노인복지관, 은평시니어클럽 등이 공동주관했다. (02)385-1351 박아름 기자

꿈을 수행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10월 1~2일, 텐진 완걀 린포체 '꿈요가' 강연

인간의 꿈을 수행으로 변화시켜 유익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꿈요가' 강연이 국내서 열린다.

리그민차 인터내셔널(Ligmincha International)은 10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서 '꿈요가(Dream Yoga)'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에는 〈잠과 꿈을 통한 수행〉 저자 텐진 완걀 린포체(Tenzin Wangyal Rinpoche)가 강사로 나선다. 완걀 린포체는 수십 년간 티베트의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 뵌교의 관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뤄왔다. 강연은 △뵌 전통에 관한 영화상영 △질의응답 △꿈요가 입문 △꿈요가 수련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6만원. 010-8752-1628


완걀 린포체

완걀 린포체는 1959년 중국의 핍박을 피해 인도로 피난해온 불교 라마 아버지와 뵌교 수행자 어머니 사이서 태어났다. 10세에 인도 돌란지 사원 수도사로 임명, 13세에 뵌교와 불교 스승들 지도 아래 수련했다. 1986년 11년간의 뵌 변증법학교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에 준하는 게셰학위를 받았다. 졸업과 동시에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문헌 · 아카이브 자치부 수석으로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명상 관련 서비스, 한눈에 알아보자

10월 1~2일, 제3회 명상힐링박람회

명상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주)오르고나이트코리아는 10월 1~2일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서 '제3회 명상힐링박람회'를 개최한다.

'세상의 모든 힐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의 명상센터를 비롯해 치유 ·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명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관련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은 행사서 다양한 참가업체 부스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명상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소강당에서는 그룹 세션이 이어진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 출신 호흡식가 빅토르 뚜르비아노의 '영혼의 세션'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천시아의 '싱잉볼 세션' △고상근 서울대 교수의 '공(空)으로 과정' △브로노 그뢰닝의 친구모임 △마법상점 아타노르의 마법모임 등이 진행된다. 행사는 주미영성기획이 주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가비는 무료. 010-8233-6139 윤호섭 기자

일선서 자비행 펼친 복지사들 "오늘은 맘껏 놀래요!"

제3회 '붓다복지향기축제'
9월 22일 광진구 정립회관서

누군가의 손과 발로 역할하며 구슬땀을 흘린 전국 복지사들이 화합 한마당서 축제를 즐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회장 화평)는 9월 22일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종합체육관서 제3회 붓다복지향기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서 모인 복지종사자 41개 팀 500여 명은 우수 종사자 표창, 문화공연, 체육대회 등 참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는 9월 22일 광진구 정립회관서 '붓다복지향기축제'를 개최했다.

화평 스님은 "오늘은 부처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복지 종사자들이 주인공인 날"이라며 "복지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많지 않지만 이번 축제서 신명나게 웃고 소통하며 힐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복지 종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불교 복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상 시상식서 이용택(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혜원(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주현숙(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오행남(황송노인종합복지관)씨 등 4명은 표창장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은 '불교복지인 선서'를 통해 △불심으로 보살행 · 자비행 실천 △하나되어 신명나게 즐기기 △극락정토 구현해 세상 밝히는 주인공 되기 등 다짐했다. 이승희 수습기자

연꽃생협, 올 기부목표 2만5000점 돌파

목적 조기 달성… "3만점으로 상향 조정"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단체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올 2016년 기부 목표수량인 2만5000점을 달성했다.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전준호, 이하 연꽃생협)은 9월 9일 2만7581점을 기부해 2016년 기부 목표수량을 달성했다. 연꽃생협은 노숙인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속옷 및 신변잡화를 공급하겠단 목적으로 '연꽃愛향기'란 공익사업을 시작, 1차 목표로 거리노숙인 700명에 제공키 위한 속옷 및 신변잡화 2만5000점을 세웠다.

연꽃생협 측은 "서울시에만 약 4,700명 노숙인이 있는데 이 중 약 700명이 서울역 등지서 거리노숙을 하고 있다"면서 "사찰 및 불자들의 큰 관심으로 9월 목표 수량을 달성했다.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인 및 기업체들의 기부도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꽃생협은 올 목표를 3만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준호 이사장은 "공익사업을 더욱 조직적으로 운영해 불교계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모집,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나누겠다. 기부와 나눔의 허브역할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속옷 및 생활용품 기부 문의 (02)720-7798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전생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개인상담 및 공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훈민정음 곳곳에 녹아 든 부처의 자비

참불선원 강좌… 혜각존자 신미와 훈민정음의 비밀

박해진 작가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학창시절 국어시간, 저녁 늦게까지 놀고 피곤한 학생도 한번쯤은 읊고 외웠을 훈민정음. 한자를 사용하고 문맹률 높던 조선에 고작 28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가 탄생했다. 한국인이 세종대왕을 가장 높게 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에는 '신미'라는 스님의 공이 컸다. 신미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12년간 신미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훈민정음의 길을 걸은 박해진 작가는 9월 19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 대강좌서 "세종 어제(御製) 〈훈민정음〉의 서문은 한자 원문은 54자, 언해문은 108자로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부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불심을 축자역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세종은 신미와 함께 훈민정음에 불교적 가치를 잘 녹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박해진 작가는… 강원도 태백서 태어나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다. 1984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후 1987~1997년 종근당 홍보실과 동방기획 PR부장을 거쳤다. 1998년부터 고건축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숭례문 · 창덕궁 · 인정전 · 경복궁 근정전 등 국보 · 보물 해체 보수, 조사 기록을 전담했다. 2002년 속리산 법주사 대웅보전 해체 인연으로 혜각존자 신미를 만나 그 발자취를 찾고, 훈민정음 연구에 몰입했다.

훈민정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종대왕을 떠올리겠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명'입니다. 당시 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훈민정음은 산업혁명보다도 더한 문자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을 훈민정음에 쏟았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이끌린 듯 말이죠. 훈민정음의 길을 걷게 된 데는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혜각존자 신미 스님입니다. 그렇게 12년간 작업해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 평전〉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과 신미 스님, 당대 학자들이 피워 올린 우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 속에는 불교가 깊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먼저 신미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세종과 신미의 비밀프로젝트

신미는 1403년(태종 3)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김수성으로 아버지는 떠오르는 신진사대부 김훈(金訓, 1381~1437), 어머니는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이행의 딸인 정경부인 여흥 이씨였습니다. 1416년 옥구진병마사(沃溝鎭兵馬使)로 내려가 있던 김훈은 조모상을 치르지도 않은 채 임지를 떠나 상경,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정종에게 줄을 섭니다. 정종과 태종 틈에 끼어 눈치를 보던 신료들은 불충불효를 내세워 김훈을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김훈은 장 100대를 맞고 전라도 내상으로 유배됩니다.

집안이 어려워지자 성균관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김수성은 1417년 외할아버지인 이행의 안내에 따라 양주 회암사에 주석하고 있던 함허당(涵虛堂, 1376~1433)의 제자가 됩니다. 함허당은 태조를 도와 조선을 개국한 묘엄존자 무학 자초의 제자로, 조선 초기 배불(排佛)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바른 길을 걸은 고승대덕이고 선지식이었습니다. 신미는 함허당의 활인검 같은 강의를 듣고 저서를 읽으며 교종과 선종의 가르침을 쭉쭉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간경도감을 통해 실천에 옮겨진 훈민정음 불전언해의 불씨였고,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됐습니다.

세종은 1434년 간명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근본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곧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였습니다. 이후 1443년 정초부터 세종은 하루, 늦어도 열흘 정도에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기 위해 거듭 고민했습니다. 그리곤 인재를 찾아다녔죠. 이때 효령대군이 신미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신미는 구결과 범어, 〈주역〉과 삼재(三才)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세종은 세자인 문종과 효령대군, 수양 · 안평대군 외에는 비밀에 붙이고 신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443년 12월 30일, 세종은 훈민정음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간단명료하고, 전환이 무궁한 글자가 캄캄한 그믐에 별똥이 떨어지듯 세종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현전 학자의 이름은 이날 기사에는 한 명도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연관된 이야기는 물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조정을 뒤흔들어놓을 만한 사건이었고, 집현전 직제학으로 있던 정인지, 부제학 최만리도 세종의 발표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3년이 지나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 서문에서 세종의 창작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세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1446년 세종은 3년간의 보완 끝에 훈민정음 창제를 마무리 짓고 목판본으로 찍어 백성에게 반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와 유학을 동시에 보급하고자 했는데요. 신미는 세종의 명에 따라 훈민정음 속에 불교의 핵심을 녹였습니다.

세종의 불교 심취

세종 어제(御製) 〈훈민정음〉의 서문은 한자 원문은 54자, 언해문은 108자입니다.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의 번뇌와 고통이 사라지고, 부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불심을 축자역으로 반영한 겁니다.

해례편은 제자해 · 초성해 · 중성해 · 종성해 · 합자해 · 용자례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세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종합설명이 담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미는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산문 형식의 해설 뒤에 칠언고시(七言古詩) 형태의 운문인 '결(訣)'로 압축했습니다. 즉 전형적인 불교경전에서 취하고 있는 게송 방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은 선시(禪詩)이고, 기리는 노래였습니다.

세종은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난 뒤 훈민정음으로 만든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용비어천가〉 세 권의 편찬 작업을 동시에 주도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불경 간행은 관료와 일체 상의하지 않고 수양대군을 앞세워 밀고 나갔죠.

세종은 신미의 동생인 김수온에게 〈석가보〉 증보를 명했습니다. 김수온은 초고가 마무리 될 때마다 수양대군을 통해 세종의 재가를 받고 신미에게 역해를 부탁했습니다. 1447년 7월 중순, 〈석보상절〉 집필이 마무리되고 신미와 수양대군, 김수온은 7개월 동안 밤낮을 잊고 언해에 매달렸습니다. 그해 11월 전24권을 완간하고 권1에 훈민정음의 교과서인 〈훈민정음언해〉를 실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세종과 신미, 김수온이 합작한 580여 편의 웅건한 시편입니다. 불법승과 천지인을 집약한 노래로, 1448년 정초 완간됐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함허당의 〈금강경오가해설의〉의 '실체를 붙여보면 오셔도 오신 바 없음은 달이 즈믄 가람에 비취옴이오[月印千江]'라는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즉, 부처의 본체는 하나. 백억 세계에 화신으로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이 달이 오직 하나지만 시공을 초월해 수많은 강을 비춤과 같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지도를 표현한 겁니다.

세종은 태종의 불교 혁파 정책을 말없이 수용했지만 말년에 이르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448년 7월 17일 세종은 승정원에 일러 경복궁 문소전 서북쪽 빈터에 본당 1칸, 동서 회랑 각 3칸, 부엌 3칸 규모의 내불당을 짓겠다고 밝힙니다. 반대 상소, 연명 상소는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간이 두세 번 불당의 역사를 파하라고 청했으나 회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월 20일 불당 1칸, 보첨 8칸, 승당 3칸, 선당 3칸, 정문 3칸, 부엌과 곳간 3칸, 욕실 2칸 등 총 26칸의 내불당이 세워집니다. 이후 세종은 신미와 김수온을 불러 찬불가와 9악장의 가사를 지어 불보살을 찬탄했습니다. 그리곤 12월 6일 내불당에서 법연을 베풀고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성균관서 정진하던 어린 신미
집안 몰락에 함허당 제자 돼
효령대군 소개로 세종과 만나
유일무이한 독자적 문자 개발

> **"〈훈민정음〉 서문은 한자 원문이 54자, 언해문은 108자입니다. 부처님 자비가 사바세계에 가득하길 바라는 불심을 축자역으로 반영한 거죠."**

지공 · 나옹 · 무학과 비견될 신미

세월이 흘러 세종이 영릉(英陵)에 들고 1450년(문종 즉위년) 7월 6일, 문종은 세종의 유훈을 받들어 신미를 '선교종도총섭(禪敎宗都摠攝) 밀전정법(密傳正法) 비지쌍운(悲智雙運) 우국이세(祐國利世) 원융무애(圓融無) 혜각존자(慧覺尊者)'로 삼는다는 존호를 발표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써 신미의 위상은 존호를 통해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추앙받았던 삼화상인 지공, 나옹, 무학과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태종 이후로 왕사 · 국사의 칭호를 쓰지 않았으나 이에 버금가는 존호이기에 유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집현전 직제학 박팽년은 7월 15일 "신미는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큰 간인"이라는 상소를 올려 법호를 거둘 것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 상소를 통해 혜각존자가 어릴 때 성균관에 입학해 공부했고, 이후 훈민정음 창제에 공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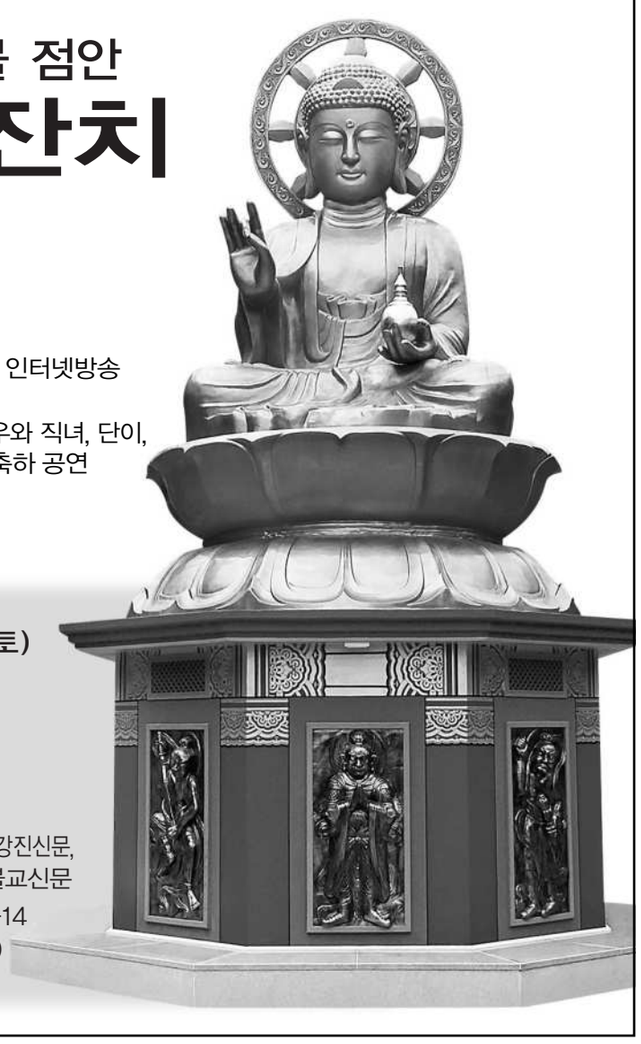
문종은 박팽년을 파직하면서까지 신미의 법호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혜각존자를 '혜각종사'로, 우국이세를 '도생이물(度生利物)'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문종과 수양대군, 신미 또한 '혜각종사'라는 법호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내린 혜각존자의 법호는 훗날 간행된 각종 불경언해 첫 머리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인 실록에는 신미를 한없이 물어뜯어놨습니다. 유자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신미는 이런 유자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문자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종 역시 '우국이세'라는 법호를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반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횃불을 들어라."

불제자였던 수양대군의 명이기도 합니다. 불경이 왜 우리말로 보급됐을까요? 지배층부터 여기에 담긴 심오한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미 스님은 훈민정음을 비롯해 불경 보급 등 모든 걸 기획했습니다. 이는 곧 독자적 문자인 훈민정음을 살찌우는 거름이었습니다. 흔히 훈민정음에 정인지 · 최항 · 박팽년 · 신숙주 · 성삼문 · 강희안 · 이개 · 이선로 등 8명의 학자가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신미 스님을 필두로 한 불교계 인사들 또한 훈민정음 확산과 보급에 나선 1등 공신입니다.

선각총림 옴천사
호남 최대 약사여래대불 점안
효사랑 큰 잔치



제1부 약사여래대불. 명부시왕 점안법회
제2부 식전행사 (오전 10시 ~ 11시)
• 장학금 전달식 (강진군 장학재단)
• 국민화합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
• BBSTV, BTN불교TV, KT올레TV, 인터넷방송
• 축하공연 – 송춘희(수덕사의 여승), 이애란(백세인생), 현진우, 이명주, 견우와 직녀, 단이, 온희정, 정현 등 (인기가수 20여명) 축하 공연
제3부 (1인 1등 / 만원)
•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삼천등 불사

◆ 일 시 : 2016년 10월 8일(토) (음, 9월 8일) 오전 10시
◆ 장 소 : 선각총림 옴천사 약사여래대불전
◆ 주 최 : 대한불교선각종 총본산 옴천사
◆ 주 관 : 대한불교선각종 문화예술원
◆ 후 원 : 선각종 전국교구본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신문, 복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우리불교신문
◆ 문 의 : 전남 강진국 옴천면 장강로 1445-14 (전화 061-433-2233. 010-3605-0207)

화왕산 관룡사 개산 1667년 기념
제4회 혜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음나눔 콘서트

화왕산 관룡사 대웅전앞 특설무대
2016년 10월 3일 (월) 오전 10시

오전 10시 점안불공 육법공양
오전 11시 법문(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스님)
오후 02시 혜민스님 마음나눔 콘서트
음악나눔(청공중창단)
보시나눔(행복드리미)

절망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단 하루만이라도 희망과 위안의 파란 하늘이 열리길 바래는 마음담아 하늘, 땅, 사람 모두가 평화롭기를 발원하는 "삼장탱화"를 모시는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혜민 스님의 마음나눔 콘서트"가 열립니다. 하늘 열려 내안의 붓다를 만나는 날 제4회 야단법석 마음나눔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화왕산 관룡사
Tel.055-521-1747 www.gwanyongsa.or.kr

삼장탱화 불사동참 한 가족 5만원

불교 아카이브 사업 실효 · 방향성을 찾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30일 'ABC사업 실효와 지향' 세미나

개교 110주년 · 전서 발간 기념
아카이브 활용 방안 등 논의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이 추진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방향성과 활용도를 되짚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9월 30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국대 개교 110주년과 〈한국불교전서〉 50권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가치와 성과' 기조 발표를 시작한다.

이후 주제 발표로 △김천학(동국대)의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원과 스님(동국대)의 '〈승만경〉 일승장에 대한 원효의 해설' △후지모토 유키오(토야마대)의 '고려판 용감수경(龍龕水鏡)과 조선판 용감수경에 대해' △최애리(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 교장〉의 가치와 활용방안' △정재영 등(한국기술교육대)의 '조선 초기 〈능엄경〉 석독구결 자료의 발견과 의미' △이대형(동국대)의 '조선 승려 문집의 성격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편찬의 가치' △오지연(동국대)의 '〈석보상절〉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와 과제' △한상길(동국대)의 '조선시대 불교의례와 〈한국불교전서〉의 의례자료' △김미숙(동국대)의 '〈일본표해록〉에 기반한 대흥사 천불설화의 콘텐츠 개발과 극화 방안' △이재수(동국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된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신라부터 조선까지 한국불교의 논저 324종을 한글화하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사업이다. 지난 5월 50권을 출간한 한국불교전서는 한 권이 출간될 때마다 불교학계서 연구 주체 채택되는 등 적지 않은 이슈가 돼 왔다.

특히, 1800년대 초 현정 스님이 불상을 싣고 표류하다가 일본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일본표해록(故 김상현 교수 역주)〉은 당시 불사의 모습과 일본 사회상을 알게 하는 문화사적 자료로써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논문 주제로 다뤄졌다.

정승석 원장은 "ABC 사업은 올해로 5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ABC 사업 성과의 가치를 알리고 차후 주력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전서 발간에 대해서도 "300권 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은 한글대장경 완간에 버금가는 대작불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동국대 출판부는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50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50권 발간기념 도서목록' 팸플릿을 제작해 무료 배포 중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 · 티베트정부도서관 MOU

향후 자료 수집 사업 구체화 전망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사진 왼쪽)과 티베트정부도서관장 게세학돌 스님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지난 8월 30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정부도서관 회의실에서 티베트정부도서관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티베트정부도서관이 자료협조 및 학술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향후 포교 문화사업 등 다방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티베트대장경 및 불교대장경 제 판본의 수집과 공유 △대장경의 보존 및 복원 연수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역경전문가의 초청 및 교육 △디지털화 된 티베트대장경 및 산스크리트 대장경 자료의 제공 △역경인력의 파견교육 등의 사업에서 협력하게 된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인도불교라는 불법의 대해를 조망함으로써 한국불교의 특수성과 고유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인도불교 경전의 원뜻에 가까운 부처님의 말씀을 한국의 승가대중과 학계에 전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은 평화로운 인류공동체 위한 사상"

한자경 교수, 대행 선사의 '한마음' 학술적 고찰

〈선학〉 제44호에 논문 게재해
철학 관점서 '한마음요전' 분석
한마음, 일체 만물과 호응하는 것
"공성 통감해야 한마음에 이르러
진정한 무아는 한마음으로 완성"

"우리는 우리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중략〉불법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한마음요전, P300〉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한마음'을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그간 석 · 박사 논문으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개념과 수행 체계 연구가 각각 1편 있었지만, 학계 중진학자가 학회지에 '한마음'을 조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발간하는 학회지 〈선학〉 제44호에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선불교의 '즉심시불'의 마음, 원효스님의 일심, 지눌 스님이 강조한 진심은 모두 일심인 한마음"임을 전제한 한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선사의 저서인 〈한마음요전〉을 통해 조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근원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신과 같은 '절대타자'를 설정하지만, 〈한마음요전〉에서는 근원의 뿌리를 나 자신의 바깥이 아닌 현재의 나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나의 내적 근원이면서 현상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이며, 〈한마음요전〉에서는 이 같은 무한의 근거를 무한히 큰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한마음'이라고 풀이한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한마음요전〉은 우리의 의식과 육신이 영원한 생명인 한마음에 기반해 비로소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논한다"며 "이 심층의 한마음을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이며, 바로 근본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한마음사상은 불교의 '무아(無我)'와 상통한다고 해석했다. "불성은 무아로 밝혀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보편적 마음"이라고 밝힌 한 교수는 "내 안에서 한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자성성 내지 공성을 통감해야 한다. 〈한마음요전〉은 한마음사상이 무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무아는 한마음을 통해 완성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마음사상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주인공(主人空)'이라는 개념이다. 〈한마음요전〉에서는 "나의 참 주인이니까 주인공이요, 또 텅 비었기에 '빌 공자' 주인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 교수는 "주인공은 개별자 안의 심층 보편자, 공통의 생명이고 전체 에너지"라며 "심층에서는 일체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돼 있으며, 이 망을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업의 총체를 관장하는 자가 주인공이며, 주인공은 안에 있는 업을 녹일 수 있다"고 주인공의 작용력을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의 주인공은 표층의식의 벽을 허물면서 드러난다"면서 "〈한마음요전〉에서는 나의 의식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인 한마음이 되기까지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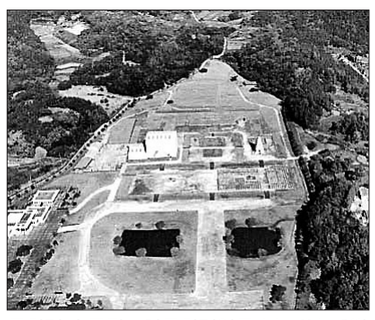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행 선사의 한마음으로 알차리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교수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배려와 협동보다는 경쟁과 투쟁에 내몰려 한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대행 스님은 '전 세계의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깨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져 보살의 행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서 "한마음사상은 진정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류공동체를 위한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익산 미륵사지 복원 · 정비 위한 발굴 착수

부여문화재硏, 22일부터 17차 정밀 발굴 시행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재발굴
강당지 남쪽 · 中院 등 주요 대상
미륵사지 기초 자료 확보 기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오는 9월 22일부터 미륵사지에 대한 17차 발굴을 시행한다. 2000년 이후 16년만에 발굴 재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익산 미륵사지 복원 · 정비를 위한 발굴이 추진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9월 22일부터 익산 미륵사지 제17차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중원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의 관람로 공사 중 발견된 석재와 배수로에 대한 추가 조사와 미륵사지 복원 · 정비에 필요한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구역은 총 4,034㎡(강당지 남편 3,465㎡, 중원 남북중심축 312㎡, 동원 중문지 256㎡)이다.

앞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정밀발굴을 위해 강당지 남쪽으로 석부재가 발견된 강당지와 중원 회랑지 사이에서 지하물리탐사(GPR)를 사전 실시했다. 그 결과, 건물지 사이 지하에 석축배수로 등이 확인돼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해 백제인의 뛰어난 토목건축 기술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발굴 추진을 위해, 굴삭기와 소형 트럭을 사용하여 성토된 지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원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 발굴현장을 직접 설명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배병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 발굴은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라며 "미륵사지의 배수 구조를 파악하고,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사찰의 구조 자체는 거의 규명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건물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며 "미륵사지 이전에 세워진 선대의 건물 유구(遺構)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륵사지 복원 고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유적정비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는 중서부고도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백제 시대 가람배치의 양상, 통일신라 시대의 동 · 서 연못지, 조선 시대 가마 등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도 함께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승단정화운동 어떻게 이뤄졌을까

한일불교유학생회, 30일 토론회

불교 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대표 홍선)는 9월 30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서에는 승단정화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기고문 등이 수록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이 '승단정화운동에 대해'를,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불교지도자에 대해'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한일불교유학생회는 "승단정화운동은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운동, 이념,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집, 논문집 등이 희소했다"면서 "이번 연구서는 교류회의 회원인 조계종의 원로 스님들이 기획, 논문 및 자료 선정 등의 편집에 직접 참여해 책의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제4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로 63번 길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 문의 : 051)510-2076 / 팩스 051)517-7101
사무국장 010-9317-9199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6년 12월 5일
세주 묘엄 스님 제5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부처님 제자'

외국인 불자 포교법 변화 주목

한국불교 전통방식 고집 없이
각 국 고유문화 존중 · 향유
정토사, 삼광사, 명장사 등
부란절 효도법회 · 음악회 열어



사진설명)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한국불교 포교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6일 울산 정토사 법당에서 진행한 부란절 모습.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포교 방향이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 방식을 주입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각국의 불교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고 있다.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지난 9월 16일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부란(Vu-lan)절 효도 법회를 개최했다.

부란절은 우란분절의 베트남식 표현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비롯해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날이다. 베트남은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전통명절로 부란절을 기념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이 날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장미를 달아 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선 제사를 지낸다. 아울러 불살생계를 지키며 채식을 고수한다.

울산 지역 이주민과 노동자들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0여명의 베트남 어르신을 초대해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세족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로를 안아주며 늦은 부란절을 챙겼다. 행사 후에는 베트남 전통음식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지난 2007년 남구복지관장을 역임할 때 만난 다문화 가족들이 인연이 되어 외국인들을 위한 정기 법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며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자국의 문화도 지키고 함께 향유하며 고향의 향수도 달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9월 23일 경내 식당서 베트남 문화 배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베사모)이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개회사로 문을 열어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과 팜 흐우 찌 주한 베트남대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 베트남 음식에 관한 특강과 체험 코너가 마련됐다. 체험 코너에서는 베트남 대표 음식인 월남쌈과 국수를 시식하고 베트남 전통놀이에 불자들이 동참해 즐거움을 더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주지 유정)는 9월 10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음악회'를 개최했다.

명장사 관음합창단 창단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음악회는 문화 향유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터민 충북연합회, 이승훈 청주시장, 정우택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음악회 1부는 명장사 관음합창단, BTN 불교남성중창단, 소나무 다문화 어린이중창단 등 여러 음악가들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2부는 공양 순서로 진행했다.

울산 울주군 영축사(주지 각문)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잔치를 베풀었다. 영축사는 9월 16일 전국의 스리랑카 노동자 200여명을 초대했다. 행사는 스리랑카 가리가무외 냐나 티바 스님의 법문 후 전통 음악과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티바 스님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고 법회를 진행 할 수 있음을 기뻐했다. 하성미 기자

폭우로 남해 보리암 축대 붕괴

안전 위해 '시급한 보수 공사 요구'



9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무너진 보리암 경내 축대 모습.

태풍 16호 말라카스가 쏟은 폭우로 남해 보리암의 축대가 무너져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

9월 17일 오전 11시~오후 2시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보리암 경내 극락전 아래 요사채 축대가 무너졌고 ,태조 이성계의 기도처로 알려진 '선은전'으로 가는 길이 사라졌다. 또한 요사채 지하 보일러실이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남해군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으며 하루 최고 강수량은 271.5mm를 기록했다.

보리암은 "19일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건물을 사용하는 것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오래 방치 할 경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지진과 여러 태풍 소식이 있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보수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차량 접근이 어려워 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성미 기자

아픈 이웃 위해 힘차게 걸어보자

부산 생명나눔, 10월 9일 생명나눔 걷기 대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 생명나눔)는 10월 9일 오후 3시 부산시민공원(아트센터부지광장)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8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부산시민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랜 투병 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환우 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개막식은 본부장 원범 스님의 인사말로 문을 열어 휠체어 전달식, 응원단 공연(동아대 A.LES), 개막 선언으로 이어진다. 걷기 코스는 △아트센터부지광장 △문화의 숲길 △문화예술촌 △즐거움의 숲길 △자연체험놀이터 △시민마루 △반환점 △미로정원 △타임캡슐 △역사의 길 순으로 진행된다.

체험 부스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참가 가능하며 혈당혈압체크, 무료차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환우와 가족, 본부 장기기증 및 후원회원, 자원봉사 관련 유관단체, 기업봉사단체를 비롯해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만오 스님, 인종·종교 초월한 인류애 실천

2억 굿네이버스에 기탁



부산 도원사 만오 스님은 9월 21일 법당에서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나눔을 실천했다.

만오 스님은 9월 21일 도원사 법당서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만오 스님은 "기독교 단체로 알려져 있는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결정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접한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시설 때문"이라며 "나눔에 있어 종교와 인종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오직 자비만이 답이다. 말라위 지역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땅에서 아기를 낳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병원을 짓는데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앞으로 탄자니아 신양가 지역 헬스센터와 말라위 참베, 친구오 지역 헬스 센터 건립 및 설비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저소득 청소년에 여성용품 지원

'락앤롤 닥터' 공동후원… 관련 기관 통해 전달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가 9월 12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부불협)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 사업에 나섰다.

부불협은 9월 12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락앤롤 닥터'가 공동 후원한 이번 위생용품은 부산불교계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부불협은 "이번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생활복지지원 사업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보호를 위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쉼터, 양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어르신들의 신나는 재능 잔치

금정구노인복지관, 제3회 '금정愛산다' 개최

부산 금정구노인복지관(관장 조수경)이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제3회 '금정愛산다'를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금정구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금정愛산다'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발표회로 12팀이 웰빙 댄스, 우리 춤 체조, 한국무용과 악기를 활용한 기타,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수업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다. 아울러 한글교실, 한자 · 한문 교실, 연필그림, 사진반 등 교육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출하고 복지관 각층 로비 및 복도 등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금정구노인복지관 측은 "본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다"며 "그 동안 배운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792-7200~3)

하성미 기자



“독립운동 지지한 후세 다츠지에게 감사”

군산 동국사,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 63주기 추모제

일본인이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63주기 추모제가 군산 동국사에서 봉행됐다.

동국사(주지 종걸)은 9월 13일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 부주지 니요카 쇼신 스님, 정영준 후세다츠지인권평화기념사업회장, 후세 다츠지 외손자인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 김귀동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했다.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이 각각 한국과 일본식 추모의식을 집전한 데 이어 추모회는 애국가 봉창, 헌화, 후세 다츠지 약력소개, 관련 영상상영,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후세 다츠지 선생은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평생에 걸친 인권 활동, 특히 한일 문제에서의 활동은 내 주제인 ‘한일불교 교류’에도 큰 용기를 주고 있다”며 “종교와 사법에 국경이 없으며 함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전망하며 후세 다츠지 선생의 정신을 채찍으로 삼아 더욱 정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1953년 할아버지가 72세로 세상을 떠날 때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추도식에 남과 북을 넘어 많은 한국인이 참석한 것을 기억한다”며 “추모제를 열어준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인들을 변호하며 조선의

독립운동 열사들 변호하며
일본정부 비판한 다츠지
1953년 72세로 타계했지만
대한민국 건국훈장 추서

소작농민을 옹호한 것은 동학농민 학살과 명성황후 시해 등 역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끼친 일본국의 일원으로 배상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일제 침탈의 중심이었던 군산시에서 후세 다츠지의 업적을 회고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후세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 등이 9월 13일 동국사 법당서 열린 후세 다츠지 63주기 추모제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다츠지(1880~1953)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됐으나 법률의 미비점과 적용에 회의를 느껴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통해 한일합병이 일제의 침략임을 규정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9년 재일조선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의 주체인 최팔용, 송계백 등을 변호하고, 1924년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때는 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한 유언비어로 인한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때 나주지역 농민을 위해 510만평의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한신교육투쟁, 도쿄 조선고등학교 사건 등 재일 한국인 관련 사건을 도맡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200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과 명절음식 나눈 4대 교단

선운사 등 소외계층 300세대에 음식 전달
종교계 함께하는 화합 · 희망프로젝트 일환

선운사를 비롯한 고창지역 4대 교단이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명절음식을 나눴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 원불교 고창지구 · 천주교 고창성당 · 고창 중앙교회 등 4대 교단은 9월 9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햅쌀, 송편, 전 등 명절음식을 준비해 고창지역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 전달했다.

고창 여성회관 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선재봉사단을 비롯한 각 교단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직접 명절음식을 마련해 지역 홀몸 어르신들과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종교계와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은 “4대 교단이 함께 명절음식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종교간 화합에



선운사 선재봉사단 스님과 재가자들이 이웃과 함께 나눌 명절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있다.

도 도움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선운사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천사, 질곡 역사 담은 사적비 제막

9월 22일,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신라 진성여왕 원년 창건 이래 2번의 폐찰위기와 6번의 중창 등 부침을 거듭한 강천사의 역사기록을 정리한 사적비가 제막했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9월 22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강천사는 신라 진성여왕 원년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이후 1100년간 지역 대표 도량으로 명성을 이어 왔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2번의 폐찰위기와 6번의 중창을 겪었다. 최근 중창기록은 1959년 영월당 영신 스님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작전으로 폐찰된 강천사를 복원한 것이다.

이날 종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강천사의 기록들을 한자리에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의 의지와 노고를 이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에 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적비 건립에 오랫동안 힘을 모아준 사부대중의 노력을 치하했다. 스님은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포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적비는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짓고,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감수를 거쳐 서예가 서홍식 선생이 글을 썼다.

한편 군산 성불사 종명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사적비 제막에 앞서 강천사 부도전서 영월당 영신 스님 부도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중 호흡 위해 불교도 변할 때”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무등 스님

시대신주(是大神呪) 시대명주(是大明呪) 시무상주(是無上呪)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

불자들에겐 익숙한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다. 이 중 무등등(無等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인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으로 이어진다.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無等山) 역시 이 같은 의미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누구나에게 열린 차별 없는 산. 이런 무등산 왼쪽 기슭에 광주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너릿재를 넘기 전, 천룡사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그런데 주지 스님 법명이 공교롭게도 무등(無等 · 사진)이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이기도 한 무등 스님은 도심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서 지내지만 작은 사찰서 다양한 포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찰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불사에 많은 힘을 쏟을 겁니다. 하지만 천룡사는 인재불사가 최우선입니다. 절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신도들이 사찰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천룡사를 대표하는 신행활동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신행기도다. 사찰 순례와 더불어 순례지서 이뤄지는 신행기도는 현재까지 110회가 넘었다.



올해 10년 순례의 회향을 인도서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다라니 독송기도와 매주 진행되는 경전공부 등은 소규모 사찰에서 실시하는 신행활동치고 제법 체계적이다. 특히 무등 스님은 신도들의 원활한 신행을 위해 시간도 대중에 맞췄다.

“아무래도 사찰이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 신도들이 이른 시간에 기도에 동참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 편하게 신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무등 스님은 자신의 법명처럼 모두가 차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연스럽게 대중과 소통하고 그 안에 녹아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호흡하고, 계율 역시 현대사회에 걸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지 말자’가 주를 이루는 계율을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인 선행 유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겠죠.”

이처럼 대중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무등 스님은 ‘사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사진을 통한 포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광주사진작가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장을 맡아 봉축사진전을 꾸준히 열고 있다. 대중에 불교문화를 알리는 한편 광주불교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동안 불교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취약했습니다. 선사들의 많은 가르침은 구전에 집중됐고, 수행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차적인 것들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역사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불교역사기록원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찰 주지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또 진리의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리는 무등 스님. 스님의 노력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인드라망 역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법은 걸음마다 옳은 것으로 채우는 것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㊻ 손오공과 미후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갈라섬, 쪼개짐이군요. 현장법사 일행들 사이의 갈라섬, 내 속에서 내가 쪼개짐…. 즉 분열입니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개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연한 말을 좋아하지 않느냐구요? 그런 말 나오는 경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도적인 세력이 소수 의견 무시하고 나가려 할 때가 많더라구요. 자연스럽게 모두를 존중하면서 화합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식으로 밀고 나가려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좀 밉거든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를 종종 보다 보니…. 그래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목은 똘똘 뭉쳐도 힘든 긴 여정이, 일행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현장법사와 손오공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앞에서 살짝 말씀 드렸듯이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행들 모두의 마음에 조금씩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명목상으로야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하고, 또 스승과 제자, 사형제라는 명분에 묶여 있지만 얼마나 각각의 취향이 다르던가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길만을 고집하는 현장법사, 재주는 뛰어나지만 촐싹거리는 병이 있는 손오공, 힘은 좋지만 욕심에 늘 휘둘리는 저팔계, 두형의 뜻에 따르지만 물귀신처럼(?) 집요한 자기 고집이 있는 사오정…. 지금쯤이면 알게 모르게 쌓여온 불만들이 폭발할 시점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현장법사와 손오공 사이의 문제로 드러난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오공과 현장법사의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손오공이 요괴를 잔인하게 죽여서 쫓겨난 적이 있었지요. 이번엔 요괴가 아닌 사람, 산적을 잔인하게 죽여서 문제가 되었네요. 여기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현장법사의 생각과, 눈앞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자기 힘을 믿고 쉽게 치워버리려는 손오공이 부딪힌 것이지요. 전에는 그래도 요괴가 장난을 친 것을 손오공이 알아채고 미리 손을 쓴 것을 현장법사가 몰라서 손오공을 내친 것이니, 현장법사의 눈 밝지 못함을 탓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다르네요. 요괴도 아닌 사람을, 단지 산적질을 한다는 것으로 죽여 버린 것이지요. 손오공이 갑자기 왜 이리 흉포해졌는지 좀 이상스럽기도 하네요. 긴 여정에 피곤도 하고, 너무도 고지식하게 원칙만 고집하는 현장법사에 대한 반발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죽이고 살아야 하는데?"하는 마음이 불쑥 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 점에서는 손오공이 분명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칠계님. 손오공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구요? 어차피 도둑놈이니 나쁜 놈들이고, 이쪽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을 이쪽에서 해친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구요? 날 죽이려는 놈들을 내가 죽이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니냐구요?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조그만 희생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구요?

에궁….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는 생각은 무척 위험한 것이지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옳을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개같이 번다"라는 말이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도덕적인 짓을 통해 돈을 번다는 의미라면요? 전혀 아닙니다. 개같이 벌면 개일 따름이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이 옳은 것으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을 위해 그 올바른 한걸음을 저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들이 천하다고 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는 훌륭한 자세지요. 그러나 남들이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개 같은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살면 개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수단에 끝나지 않고, 그러한 방식에 길들인 사람과 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장법사와 손오공

목적과 수단 분리해선 안 돼
밝은 지혜 바른 마음서 나와
세상 분열 · 화합도 이와 같아

의 경우를 가지고 말해볼까요? 불법의 목적은 자비실천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는 것은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이고, 그 불법을 널리 펴는 목적은 자비의 실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가는 길에 자비심을 저버린 짓을 한다? 목적과 수단이 어그러지는 것이지요. 그런 짓을 하면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업이 생기고, 그것이 습을 이루게 되면 성불의 길과는 영영 멀어지고, 목적인 자비가 실종되는 세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너무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나무라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는 원칙주의를 고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사고방식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요즈음에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의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하는 말들을 쉽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쪽의 특수한 상황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단지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좀 가볍게 다룬다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풍조로 되어보세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방식을 이때까지만 쓰고 다음부터는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제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과 행동방식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그것이 편한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를 만들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장법사가 좀 갑갑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충분히 존중받을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가볍게 생명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저 "너 그러면 안 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하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무언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그것을 다른 한쪽에서 참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걸 말려야 할 저팔계, 사오정도 은근히 속으로 꼬여 있다 보니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세상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오랜 동안에 쌓여온 유래가 있는 것이지요.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 했지요. "서리를 밟다 보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고. 큰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손오공의 파문, 그것은 오랜 여행을 해온 일행 사이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한 인격 안에서의 분열이지요. 자기의 마음 안에서도 여러 생각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개인적인 사사로움을 꾀하는 마음과(人心) 도를 추구하는 마음(道心)이 사방 한 치 되는 마음속에 뒤섞여 나온다"고 표현하지요. 지금은 원칙을 고수하려는 마음, 계율을 지키려는 마음, 근본인 자비를 수호하려는 마음이 한편이라 할까요? 다른 한편은 목적을 향해 좀 쉽게 쉽게 나가려는 마음,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참기만 해야 돼?" 하는 식의 마음이 나온 것이겠지요. 결국 그 두 마음이 다투고, 이 마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현장법사를 내쫓을 수는 없으니 그 인격의 한 측면을 상징화한 손오공을 내쫓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번은 좀 그 분열이 심각해요. 내 쫓긴 손오공의 집착과 분함이 좀 깊었던 모양!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분신을 만들어냈군요. "꼭 현장법사 당신이 인도로 가서 경 가져오란 법 있어? 내가 가서 가져와버리지!"하는 마음으로 발전한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이 동방세계의 불교 교주가 될 테고, 대대손손 우러름을 받을 것 아니냐! 사오정이 찾아갔을 때 가짜 손오공이 했던 말, 그것이 바로 분열된 손오공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렇게 손오공 자신의 분열이 일어났으니,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기와 자기가 싸우는데 누가 이길 수 있나요? 가짜와 진짜, 그것을 누가 가릴까요? 관세음보살도 못 가리죠. 옥황상제도 못 가리죠. 염라대왕도 못 가리죠. 당연한 이야기네요. 원래 한 몸인데 어찌 가리겠어요. 그래서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까지 그 싸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밝은 지혜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손오공이 다투며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되돌이표….

"너희들은 모두 한 마음이로구나. 그런데 보아라! 두 마음이 서로 싸우며 오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는 한 마음이어야 할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고, 그 두 마음의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서유기에선 부처님께서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을 가리십니다. 원숭이 가운데도 요상한 원숭이 여섯 귀를 가진 요망한 미후가 바로 가짜로 둔갑한 것이라고 밝혀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아마도 원숭이 같은 마음 가운데서 정말 요망한 원숭이 마음, 그것이 가짜 손오공으로 분장하고 나타났음을 말씀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음의 나뉨이지만 거기에도 옳음과 그름, 바름과 삿됨의 구분이 없을 수 없으니, 바름으로써 삿됨을 극복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바름과 삿됨을 구별하는 궁극적인 눈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일 뿐이지요. 서유기에서 미후를 때려죽인 것으로 나왔지만, 부처님 지혜가 작용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였을 리가 있겠어요? 올바른 지혜의 눈이 뜨이니 삿된 마음은 스르르 자취를 감추고, 뚜렷한 바른 마음이 올곧게 드러났을 뿐이로다! 삼쾌선생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일지니, 꼭 무찌르고 죽이려는 적대심으로 번뇌를 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좋아하는 삼쾌선생! 이크, 갑자기 싸늘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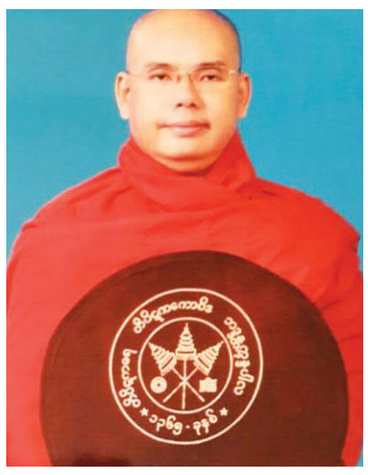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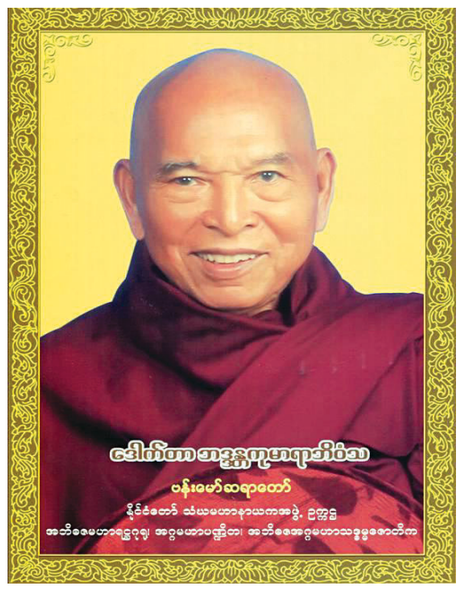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대강당 / 오후 1시 30분

■주 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 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최고 큰스님(종정스님, 부종정 스님들)** 16분이 한국에 오십니다

Ven. Ku Mara Bhivamsa	Ven. Eikdibala	Ven. Nageinda	Ven. Eindapala
Ven. Eaindar Sa Yi Ya	Ven. Dhamma Pi Ya	Ven. Thuriya	Ven. Pyinyein Da
Ven. Zawana	Ven. Nanditayna	Ven. Jo Ti Ka	Ven. Eindarsariya
Ven. Oke Ta Ra	Ven. Thaw Bi Ta	Wai Phyo Lwin	Niamphoon Sukhon



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보시의 화신 Dr Khin Shwe

한국본부 三師 교수아사리 : 현담 | 갈마아사리 : 혜정 **본좌스님 외 108 證明團**

10월 4일 각 정당 의원들과의 오찬 | 10월 3일 미얀마타운 명명식 축하법회

합동 建幢(건당) 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의식 봉행 1시 30분

관리위원장 : 성각 / 조직위원장 : 원명 / 의전위원 : 성봉스님 외 9명

건당. 품수 심사위원회 의장단 : 혜선. 무상. 진성. 혜관. 심오. 송몽. 법산. 도명, 법현

세계불교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법회 추진위원 : 이종관. 대공. 대도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3師 108 證明團에 큰스님들을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후 원 : 국회정각회 / 동국대학교총동문회 / 용성 대각사상선양회

총괄본부장 大僧正 목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02)733-5665. 010-3618-6061

승려의 경지 물 흐르듯 써 내린 詞伯

〈사백: 시문의 대가〉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㉚ 면앙정 송순

조선 중기 호남의 가단(歌壇)을 이끈 송순(宋純, 1493~1582)은 담양 출신으로 거문고를 잘 타는 풍류객일 뿐 아니라 음률에도 밝았던 인물이다. 자는 성지(誠之), 수초(遂初)이며 면앙정(仰亭), 기촌(企村)이라는 호를 썼다. 1552년 면앙정을 중창하여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을 형성하였으니 당시 이곳에 모인 인사로는 기대승(奇大升)과 임제(林悌), 김인후(金麟厚), 임억령(林億齡), 박순(朴淳), 고경명(高敬命) 같은 사대부들이다. 특히 기대승은 〈면앙정기〉를 썼고 임제는 부(賦)를 지어 고상한 면앙정의 아취를 세상에 알렸다.

송순이 처음 벼슬길에 오른 것은 1519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다. 그는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제수된 이래 사간원정언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건만 김안로가 득세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면앙정을 지었다. 특히 그가 여기에서 지은 〈면앙정가(仰亭歌)〉는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그는 김안로가 죽은 후에야 다시 홍문관 부응교에 올랐다. 이어 사헌부집의에 제수되고 사간원대사간에 오르는 등 요직을 거쳤으나 1542년경 윤원형으로 인해 전라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한때 〈중종실록〉을 편찬했고 1550년에는 대사헌과 이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서천으로 유배되었고 이듬해 해배된다. 1568년 한성부좌윤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의정부우참찬에 제수된 후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일(隱逸)하였다.

후일 그가 뜻이 맞는 시인묵객들과 어울려 면앙정가단을 형성한 일은 호남의 성산가단(星山歌壇)이나 영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 노가재가단(老稼齋歌壇)보다 앞선 것이다. 특히 면앙정가단은 사대부 출신의 문인 가객들로 구성되었던 반면 경정산가단이나 노가재가단은 전문 가객들이 중심이 된 가단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아무튼 송순은 자연을 예찬하는 작품을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기여한 공이 컸다. 더구나 호기로운 기상을 지녔던 그는 품 넓은 재상으로도 이름이 높았다고 하니 다투어 자신의 시축에 제발(題跋)을 받고자 하는 승려들이 없었으랴. 그러므로 교유했던 석희 스님이나 지천 승려, 팔환상인, 그리고 백암사 쌍계루(白巖寺 雙溪樓)에서 포은 정몽주의 시에 차운한 시를 남겼을 터이다. 먼저 그가 석희 상인의 시축에 쓴 〈차석희상인시축(次石熙上人詩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다하지 않은 음식, 몸을 지탱할 뿐
(飮食無煩支外形)
제호를 내치니 이미 본성이 가득 차네
(醍醐 散性已爲)
담박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아름답고 추함도 없으며(心歸淡泊空妍醜)
텅 빔을 배우니 사생도 끝없어라
(學向虛無盡死生)



2012년 호남문화원과 면앙정 송순회방연 재현행사위원회가 개최한 제2회 면앙정 송순회방연 재현행사. 송순회방연은 1579년 면앙정 송순의 과거급제 60년을 맞아 제자들이 면앙정에서 큰 축하잔치를 열고 스승을 태운 가마를 직접 메고 집까지 모셨던 연회다. 사진제공=담양군

아득한 현의 빗장을 여니 현상에 매이지 않고
(玄鍵遙開臨罔象)
신령한 구슬을 닦자 맑고 원만함이 드러나네
(靈珠曾拭見圓淸)
공부 끝나자 바야흐로 오묘한 이치와 통하니
(工夫了底方通妙)
이 등불, 밝음이 사라졌다 말하지 말라
(莫道玆燈有滅明)

석희 상인에게 준 시는 송순이 인식한 불교관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번다하지 않은 음식, 몸을 지탱할 뿐/ 제호를 내치니 이미 본성이 가득 차네"라고 한 대목이다. 절제와 검소를 실천하는 수행자는 최소의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맛 좋은 제호를 멀리하여 절제함으로써 탐욕이 사라진 본성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신령한 구슬을 닦자 맑고 원만함이 드러나네/ 공부 끝나자 바야흐로 오묘한 이치와 통하니"라고 하였으니 신령한 구슬은 마니주가 아닌가. 본래 청정한 마음에 낀 오탁을 닦아 맑고 원만함이 드러난다는 말은 바로 불교의 수행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묘한 이치에 통달한 경지라면 유무의 분별이 이미 사라지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하니 어찌 등불은 늘 밝지 않으랴.

이뿐만이 아니다. 그가 도리사 승려에게 준 〈제도리사승시축(題桃李寺僧詩軸)〉에는 속진에 물들지 않은 도리사 승려의 진면목을 그렸는데 2수(首) 중에 첫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멀리 천봉으로 옮겨 돌 사립문 닫으니
(遷千峯掩石扉)
한 티끌 먼지도 스님에겐 이르지 않네
(一塵曾不到禪衣)
새 울자 떨어지는 꽃, 한가한 일에 빠졌으니

면앙정 중창 후 가단 형성
조선 시가문학에 큰 기여
불교관 이해도 뛰어나
절 머물며 승려들과 교유

(鳥啼花落渾閑事)
다리 밖 드문드문 오는 객, 무슨 방해가 되랴
(橋外何妨客到稀)

천봉은 수많은 산봉우리가 있는 곳, 깊은 산중을 말한다. 바로 도리사가 그런 절이다. 바로 이곳은 수행에 부지런한 승려가 사는 곳, 세속의 먼지 하나도 이르지 않는 암자다. 더구나 도리사에서 공부하는 스님은 도가 높아 수행의 열락에 흠뻑 빠져 있으니 그의 이런 경지를 방해할 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다리 밖 드문드문 오는 객, 무슨 방해가 되랴"라고 한 것이다. 또 〈제도리사승시축(題桃李寺僧詩軸)〉 2수에는 수행자의 걸림 없는 삶을 이렇게 노래했다.

가을 달, 봄꽃 피는 세월을 기억하지 못하고
(秋月春花不記年)
다만 원숭이, 학을 따라 깊은 산 속에서 늙네
(只隨猿鶴老巖前)
한적한 마음, 날마다 상재하는 구름과 함께하니
(閒心日與雲相在)
다른 산에 신선 있다는 게 미덥지 않네
(未信他山更有仙)

도리사 승려는 공의 이치를 터득한 수행자인 듯하다. 그러므로 "가을 달, 봄꽃 피는 세월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원숭이 학을 따라 깊은 산 속에서 늙네"라고 했을 것이다. 결국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탈한 경지, 바로 도리사 승려의 모습이다. 송순은 강호의 사백(詞伯)이었으니 절로 이런 경지를 물 흐르듯 그려냈다. 따라서 그의 높은 시격, 이름이 높았으니 이 향내 따라 그를 찾은 승려가 많았던 것이다.

그가 영통사에 머물 때에 벽에 남아 있던 권근(權近, 1353~1409)의 시를 읽었던가보다. 홀연히 일어나는 시흥(詩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영통사에 머물며 양촌 권근이 벽에 쓴 시를 차운하다(宿靈通寺 次權陽村壁上韻)〉라는 시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너의 한가함을 훔치려 가을 숲을 찾았더니
(偸閒偶爾訪秋林)
곧은 회나무와 이리저리 굽은 덩굴,
서로 그늘을 드리웠네(脩檜盤蘿互結陰)
계곡을 감싼 듯 중첩된 바위, 돌아도 끊이지 않고
(護谷重巖回不斷)
감아 도는 계곡을 건너 들어가자 더욱 깊어라
(繞溪一逕入猶深)
다리 주변 옛일, 찾아도 흔적조차 없지만
(橋邊舊事尋無處)
벽 위에 아름다운 시는 지금까지 전해지네
(壁上佳詩傳至今)
승방의 창가에서 밤 달을 보려하니
(擬借僧窓看夜月)
실없이 일어나는 벗 생각, 홀연히 가라앉네
(無端雲樹忽平沈)

그의 〈영통사에 머물며 양촌 권근이 벽에 쓴 시를 차운하다〉에는 "절 앞에는 흙다리의 옛 흔적이 있다(寺前有土橋舊跡)"라는 부제가 있다. 개성부근에 위치했던 이 사찰에는 흙다리가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송순이 영통사에 머물 당시에는 이미 다리는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에겐 권근의 시에서 느끼는 감동이 컸을 터이다. 또한 기묘사화의 언저리를 경험했던 그가 정변에 희생된 벗들의 시를 보곤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해를 가린 부운, 거두었다 다시 흩어지지만
(蔽日浮雲卷復敷)
향기로운 난초를 일시에 시들게 할 수 있네
(能敎蘭蕙一時枯)
인간 세상에선 여향을 찾기 어려웠네
(難從人世尋餘臭)
우연히 선가에 떨어진 구슬을 줍누나
(偶向禪家拾落珠)
봄풀은 몇 번이나 푸른 네 무덤을 지났던가
(春草幾回靑四塚)
머물 곳 없는 벗의 마음, 외로운 몸에 의탁했네
(舊懷無處托孤軀)
손 때 묻은 글씨 펴 보니 줄줄 눈물이 흘러
(奉披手澤 然淚)
공(空)에 의지한 고승, 한동안 나를 기이하다 여기리(空取高僧久怪吾)

송순은 기묘사화에 희생된 유학자들의 슬픈 내력을 "이웃에 승려 지천이 시축을 옷소매에서 꺼내서 보여주었다. 서계 남수가 첫머리에 일률을 지었고 눌재 박사씨와 경앙 최산두가 그 다음에 시를 썼으며, 형중 윤구가 서문을 지었는데 네 공은 모두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그 글씨를 보니 완연하여 어제와 같았다. 얼마간 펴 보다가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운(韻)으로써 슬픔을 드러냈다. 최공 산두는 사인 벼슬을 하였고 호는 신재이며 광양에 살았다. 윤공구는 벼슬이 교리였고 호는 율정이며 해남에 살았는데 모두 기묘사류들이다.(隣僧智泉袖一軸開示 南西溪 首題一律 朴訥齋師氏與崔景仰山斗 次其韻 尹亨仲衢作序文 四公皆不遇而逝 今見手跡 宛然如昨 披展良久 不勝愴懷 用其韻以敍悲 崔公山斗 官舍人 號新齋 居光陽 尹公衢 官校理 號橘亭 居海南 皆己卯士流)"라고 하였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화로 송순이 별시문과에 급제한 해에 일어났다. 당시 연산군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신진사류인 조광조 등을 등용,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훈구파인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 등의 간교를 피할 수 없었다. 바로 지천 승려의 시축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의 자취를 보곤 왈칵 눈물을 쏟은 송순이었다. 난세의 격랑을 지켜 본 그가 면앙정에서 음풍월로 세월을 낚은 건 어찌할 수 없는 시절의 선택이었으며, 그가 남긴 가사에는 고초로 얼룩진 역사의 그늘이 배어있었던 것이다. 그가 면앙정에서 남긴 수많은 시문은 〈면앙집〉에 실려 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9월 30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리더에게 聽하다

회정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한국 密敎 문화의 영원한 리더…



회정 정사는… 1980년 진각종에 입교한 회정 정사는 향가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전법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부터 95년까지 대한불교 진각종 제 8대와 9대 종의회 의원을, 97년에는 진각종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98년에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를, 2005년에는 27대 통리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제 29대 통리원장으로 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과 탑주심인당 주교, 〈밀교신문〉 발행인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힘들죠? 함께해요〉 등이 있다.

전 세계 50개국 250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가장 큰 불교협의체인 '세계불교도우의회'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 WFB) 제 28차 서울 총회가 대한불교진각종 주최로 9월 26~30일 서울서 열리고 있다. 주제는 진각종 수행 모토인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이다.

WFB는 불교 종파를 초월해 국제사회에서의 불교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1950년 스리랑카에서 창립됐으며,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서로 우의를 다지며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 WFB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90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대회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회장인 제 29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사찰과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진각종 개종 이념이 이번 총회를 통해 널리 홍포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 핵실험 등으로 갈등의 최고조에 직면한 한반도 더 나아가 세계평화는 물론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10월 31일 제 29대 진각종 통리원장 임기를 마치는 회정 정사에게 그동안의 소회와 진각종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제 27대와 29대 원장을 지냈는데, 27대를 전반기로 29대를 후반기로 나눠봤을 때 각각의 성과를 평하신다면요?

-27대는 진각문화전승원을 시작하겠단 발원을 한 시기입니다. 2005년부터 원을 세워 2007년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과 진각복지센터를 완성한 것이 전반기 의 대표적 성과입니다. 이후 4년을 쉬고 29대 후반기엔 국제불교문화체험관과 교육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조경 공사와 뒷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통리원장 두 번의 재임 동안 진각종 총인원 불사와 성역불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기쁩니다.

▲외형적인 불사의 성과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단 내적인 성과는 어떤가요?

-진각종 3대 종책이 포교, 교육, 복지입니다. 27대 때 종책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포교와 관련해선 국내 교도들의 신행을 더욱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육적으론 대학교, 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복지는 진각복지재단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인 29대 때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를 구축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가령 '한국밀교문화총람' 을 편찬하는 등 월곡동 총인원을 한국밀교문화 집대성지로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해외 포교도 일찍부터 관심 갖고 추진하신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성과도 설명해 주세요.

-전반기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의 해외 포교였다면 후반기엔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와 네팔 포교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포교를 했는데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추천받은 현지인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니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셈이죠. 현지인들을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서 학부와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밟게 후원한 뒤 각각 본국으로 다시 보내 스리랑카와 네팔 포교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활발한 활동중입니다. 특히 10월 중순에는 네팔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회에 초청돼 반야포교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행 착오 이후 현지화 전략이 성공한 셈인데, 국내 불교계가 해외 포교 사업을 펼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현지인들이 우리나라서 박사학위를 따는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문화와 진각종 교리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나는 현지인들

해외포교의 닻을 올리다

현지인 교육후 재파견 성공 비결
네팔, 신불교운동 현지서 큰 호응
스리랑카, 법인 설립 등 17년간 포교

이 해당 지역서 '신불교 운동' 을 추진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자국의 문화적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와 네팔 불교는 상좌부 불교로 생활화 되지 못한 채 허례가 많습니다. 이들 불교가 변화해 우리 생활 속에서 부처님이 살아 숨 쉬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팔 일요법회에는 20명 남짓 참여하던 것이 1년도 채 안돼 200여 명이 모여 진각종식 밀교 법회를 열 정도로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해외 포교 거점지로 네팔과 스리랑카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1998년 당시 진각종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캔디시 중앙공원서 우연히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소풍온 한국 수녀님을 만났지요. 수녀님 말씀이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 사랑을 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독교에 뒤쳐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우리도 유치원생 교육의 원을 세우고 1999년 스리랑카 정부에 정식 요청해 6천여평을 지원받고 학교를 지은 것이 첫 계기였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17년째 교육불사 중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엔 스리랑카 국제회당학원 재단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학교 시설유지 및 보수, 학용품, 현지 직원 임금 등 일부분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왕래하며 한국어 교육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쪽으로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종단 원로 스승님들의 노후복지를 담당하는 기로원 활동은 어떤가요?

-대구 비산동 기로원을 올해 경북 청도로 옮겼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스승님들도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적 삶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보수해 옮긴 것입니다.

물론 기로원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스승님들에게는 종단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은 스승님들의 노후 복지를 창종 초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이 점이 다른 불교 종단과는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현직에 있는 스승님 220명 중 현재 65세 정년 이상 스승님은 약 80여 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이러한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앞서 전반기 성과를 포교로 말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이뤘나요?

-진각종 수행의 가시적 효과는 기복 불교가 아니라 스스로 이루는 '행동하는 불교' 문화를 정착했단 점입니다. 진각행복디자이너 단체 JVC를 조직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단적인 예입니다. 교도분들이 수행을 늘 즐겁고 신바람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는 수행은 그 자체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진각종은 아직까지도 예외없이 월초불공을 7일씩 하는데요, 그래서 수행이 힘들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과거의 수행 전통을 현대에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이 꼭 한 자리서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장소서 하는 불공을 가리켜 '시시불공 처처불공' 이라 하지 않습니까? 법당에 나오지 않아도 진각종 신도들은 언제나 희사불공, 계행불공, 하심불공, 용맹불공 등 여러 수행법을 실천합니다. 흔히 진각종서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불교가 발전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치열한 불공이 없다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일요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불자들에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키는 대로 왔다갔다하니 단체 화합이나 구심점이 생기지 못하고 힘 없는 종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각종은 자성일(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7시 매번 공식불사를 진행합니다. 또 스승님들이 불사를 매일 집전하죠. 교도분들이 정해진 형식 속에서 수행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수행과 정진이 진각종을 이어온 큰 힘입니다.



성역화 불사, 해외포교 등 견인차



▲다른 종단은 출가자 감소 때문에 비상입니다만 진각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진각종은 출가자 제도가 아닙니다. 신도들은 재가 종무원으로 열심히 종무에 임하면서 교육 받고 있으며, 진각대학원 과정까지 7년을 공부합니다. 이후 본인 뜻에 따라 교화 활동의 길로 나갑니다. .재가 불교 종단이기 때문에 언제든 종무원으로 활동하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인원부족으로 곤란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는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진각종은 여러 대안을 강구중입니다. 예를 불교학과를 아예 진각종학과 혹은 심학과라고 바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까 고민중입니다. 질 높은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섭니다.

전국에 심인당이 약 120여개 있습니다. 300여 스승님들이 2인(정사, 전수)씩 1개의 심인당을 운영하기에 교화활동을 하는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해로 창종 70주년을 맞았는데 대사회적 성과를 꼽는다면요?

-1990년대 들어서 진각종이 대사회화운동을 본격적으로 관심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청정국토가꾸기운동'을 시작해 각 지역 환경 정화 및 지역주의 타파 등을 펼쳤습니다. 이후 90년대 중반부터 남북통일을 위한 대북 지원사업을 이끌었습니다. 법타 스님과 함께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설립하고 지원했습니다. 1998년 9월 추석에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어린이 분유 및 아스피린 보내기 운동'을 하자 북한 불교계서 초청을 하기도 했죠. 이후 사회복지법인도 설립해 현재 5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입니다. 또한 비로자나청소년협회를 설립해 청소년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사회적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28차 WFB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행사 개최 계기와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각종 대사회화 운동에 진력

1990년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 시발점
남북통일 위한 대북지원 사업도 펼쳐
사회복지법인설립 후 50여곳 시설 운영

-세계불교도우의회(WFB)는 1950년 스리랑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가 1958년 태국 방콕 총회 때 동산 스님, 청담 스님 등과 함께 처음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총무부장으로 있을때 당시 WFB 한국본부를 관리한 박동기 박사가 미국서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임선교 부회장이 회장을 맡다가 재정 사정이 어렵다며 저에게 본부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WFB 한국본부를 제가 운영했습니다. 이후 대만, 일본, 중국 총회 때마다 참석하면서 태국에 있는 사무총장과 자주 만남을 갖다보니 작년에 나에게 28차 대회를 진각종이 맡아줬으면 하고 부탁해 성역화 불사도 보여줄 겸 수락했습니다.

▲이번 행사서 예상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요?

-이번 총회 슬로건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입니다. 사실 불교는 속세를 떠난 종교를 지향하는 종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도우의회에 모인 많은 분들에 진각종의 대사회적 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현 상황을 알리고 싶어 평화통일을 하나의 세션으로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후 29일 오후에 참가자들과 함께 JSA 견학도 떠납니다. 아울러 연세대 손열 교수, 북한학 전공자인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등 3명이 논문을 발표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마지막날엔 평화선언도 합니다. 남북이 경직된 현 상황서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제스쳐가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35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시대서 각 분야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장(勇將)보다 지장(智將), 지장보다 덕장(德將)'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슴 넓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리더가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곤란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서 오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틀린 생각을 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저런 뜻도 있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 같은 사람만 찾고다보니 편가르기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면 '생각의 만다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잘맞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발원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개인 차원서 자유로운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암 투병 등 고통스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이 마음 편히 지낼 시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인이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 진통제는 처음엔 효과적이지만 갈수록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길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호스피스 공동체를 마련해 서로 위로하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정리 및 대담=김주일 부장 · 사진=노덕현 기자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⑦

사념처 기본은 현 상태 인지

네 가지 대상을 바탕으로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을 의미하는 사념처(四念處) 수행의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느낌이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즐겁다는 느낌, 괴롭다는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를 말한다. 〈맛지마-니까야〉의 '사띠파타나' 경에 따르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지점, 곧 자신의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접촉하여 구체적인 하나의 질감으로 드러난 그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인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의 발생과 소멸과정 또한 주의 깊음의 힘이 작용되어야 할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심념처(心念處)는 마음에 대한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을 의미한다. 여기서 마음이란 지금 이 순간에 감지되는 마음의 양태를 가리키는 것이니, 곧 마음이라는 그릇에 순간순간 담기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 주의 깊음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인지'가 심념처 명상의 요체라는 규정이 된다.



그림 · 나은영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음상태를 살펴보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따위의 부정적인 요소는 물론 '마음 집중, 삼매, 해탈' 등의 긍정적인 요소도 감지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떤 상태가 (마음에) 붙어 있음'을 뜻하는 팔리어 접두사 'sa-'와 '어떤 것이 떨어져나갔음'을 의미하는 'v?ta'가 교묘히 대조를 이루면서 '심념처' 수행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곧 탐욕(r?ga)을 예로 들면, 'sar?ga(지금, 마음속에 탐욕이 있음)', 'v?tar?ga(지금, 마음속에 있던 탐욕이 떨어져나감)' 등의 하나하나가 심념처 수행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법념처(法念處)는 짧은 설명으로 전모를 드러내기 어렵다. 일단 법(法) 자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 법념처 수행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념처경'을 비롯해서 '사띠파타나' 경에서도 법념처 수행의 대상은 매우 폭넓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지혜를 가리는) 덮개'[五蓋], '정신 작용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五取蘊],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六內外處]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구속/집착,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곱 가지 길'(七覺支), '괴로움의 발생/원인/소멸/소멸의 길이라는 네 가지 갈래의 진리'(四聖諦).

경전에서 제시한 법념처 수행의 대상은 이처럼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따르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닦으란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하나하나 알고 이해해나가는 앎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일 것이라고 가늠할 터인데 이와 같은 '법념처'의 내용은 아무리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려 해도 불교의 정형화된 교리 자체를 넘어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내용이 어떻게 명상 수행의 바탕 또는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법념처의 의미와 의의를 푸는 핵심어가 될 것이다.

법(法)이라는 불교 용어를 제대로 풀자면 긴 논의를 추가해야겠지만, 불교 밖의 사유체계와 소통할 수 있는 용어로 간략히 정의하면,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하고 포착하는 대상세계/경험세계를 일러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법'이 명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미 그것은 '사유의 영역'과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질 물음은 하나다. 사유와 명상은 도대체 무슨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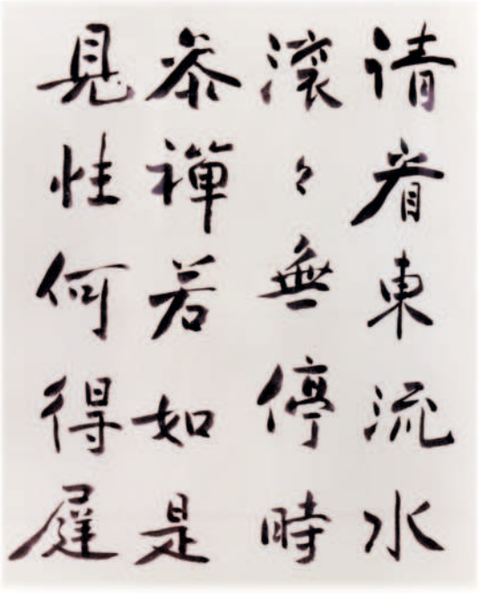
보조사상연구원 효봉스님 열반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Academic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Hyobong-Haknul's 50th Nirvana

2016년 9월 30일(금) 10:00 ~ 18:00 / 서울 법련사 대웅전(3층)
Friday 30th September 2016, 10:00~ 18:00 / Bubryun-sa(Seoul), the main temple(3rd floor)

■ 주 제 : 수선사 보조국사와 송광사 효봉
■ 세부주제 :
❶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
❷ 효봉의 전법계보와 보조가풍의 계승
❸ 다시 생각해 보는 돈오점수론
❹ Hyobong Sunim and "Studying Chinul"(Hangnul 學訥)
❺ 수선사의 금속활자본 간행
❻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❼ 반야심경 공부

학술대회 일정

09:30 ~ 10:00	학술대회 등록
10:00 ~ 10:40	· 개회사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대회사 : 현호 스님(본원 이사장) · 축 사 : 설정 스님(수덕사 방장) / 월탄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 인사말 : 법산 스님(본원 원장)
10:40 ~ 11:40 사회 : 최연식(동국대)	발표① 강건기(전북대 명예교수) 목우자 지눌의 생애와 사상 - 사상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
11:40 ~ 12:40 사회 : 최연식(동국대)	발표② 최병헌(서울대 명예교수) 효봉의 전법계보와 보조 가풍의 계승
12:40 ~ 13:40	점심공양
13:40 ~ 14:40 사회 : 황순일(동국대)	발표③ 길희성(서강대 명예교수) 다시 생각해 보는 돈오점수론
14:40 ~ 15:40 사회 : 황순일(동국대)	발표④ 로버트 버스웰(UCLA 교수) Hyobong Sunim and "Studying Chinul" (學訥) : The Centrality of Chinul's Excerpts (節要) to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
15:40 ~ 16:00	중간휴식
16:00 ~ 17:00 사회 : 차차석(동방대)	발표⑤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수선사의 금속활자본 간행 - 최초의 금속활자본(남명천화상송증도가)은 수선사에서 간행했다. -
17:00 ~ 18:00 사회 : 차차석(동방대)	발표⑥ 이법산(동국대 명예교수) 효봉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의 현실
18:00 ~ 18:20	폐회사 / 사홍서원



■ 문의 : 보조사상연구원 문혜진 간사 010-4494-1981



대행 스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 해년마다 지내는 추석이지만 올해 추석에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이렇듯 이 마음도리를 만나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했고, 저를 이렇게 수승한 공부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석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뜻을 계승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여러분께서 8월 추석을 지내셨습니다. 8월 추석을 지내신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음미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으로 밥을 지어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이 지수화풍이나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그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다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없으면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하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일체 만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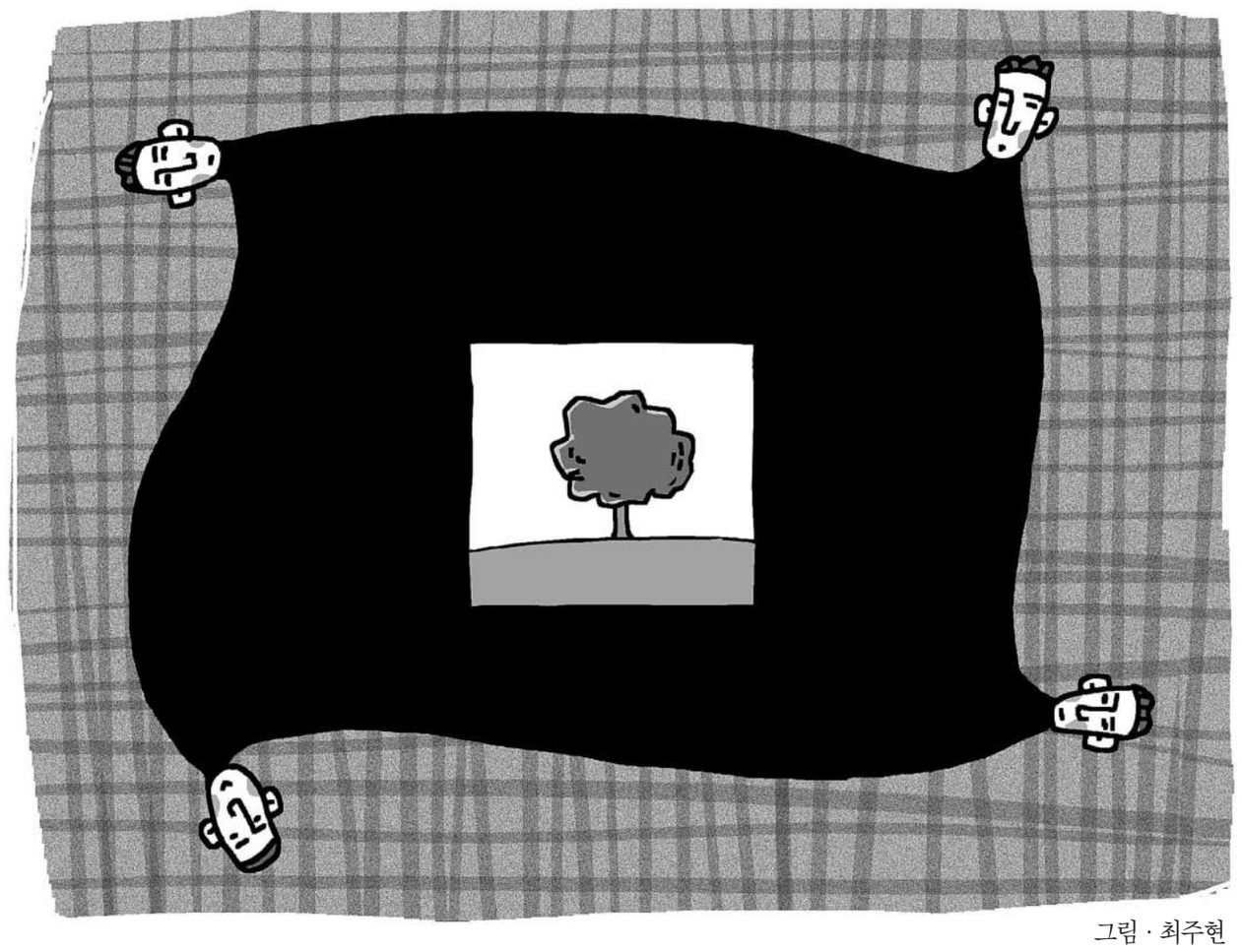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 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 씨도 아니요 사람 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 우리가 한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법력 높으신 스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변 우리는 여러 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진실하게 믿고,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안에다 물을 줘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벌써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둘로 보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어도 옳은 거는 옳게 안으로 놓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은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바빠서 절에 못 온다, 뭐,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내 집 아이가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데 왜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는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그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은 해도 괜찮건만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 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옵니다. 그 점을 자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

질문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하고 통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해결 방법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통일을 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보지마는, 우주 삼라만상에서 다 통례가 있습

☞ 26면으로 계속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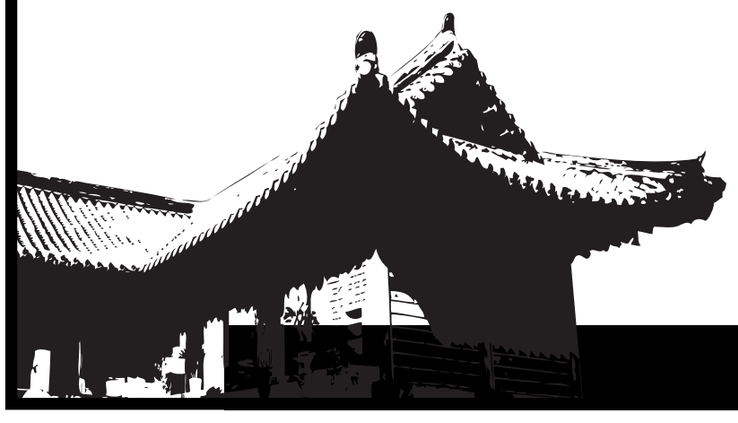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팽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질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쪽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리는 없으니까 저쪽을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몇십 년 전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우리 애들더러도 "어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죠.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 뜻이라면 우주간하고도 통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이 돼서 이 만물하고도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소한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어떻게 잡는다 이러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법 줄기를 갖다가 거기로 대죠, 모자라는 거를 채우면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돈 사람으로 생각되게끔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해야 된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집니다. 모두 공해로 인해서 생긴다고도 하고, 아니 1/3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지금 원기 그 자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지금.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 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음 이 자리밖에는 우주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밖에는….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지 못해서 용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딴 사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부르려니 입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금방 나는 이름을 불렀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또. 어저껜 금방 그 말을 "야, 자꾸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뭐가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금방 했는데도 그냥 또 까만 거예요. 그렇게 까매요. 그런데 뜻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새 발의 피다. 이것이 앞뒤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이건 보이지 않는 무의 법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것이 영의 소행이라 하는데

질문 제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마음공부를 해 나가면서 한동안 설사가 멎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설사가 계속돼서 수시로 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영의 소행이라는 소리를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이날까지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생이에요, 공생. 공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자 공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꼭 명심해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하고 사는구나. 이 몸에서 세포 하나의 생명체가 떨어져 있는 게 없구나. 다 더불어서 같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구나.' 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니게 똑같이 섬기세요, 마음으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모두가 공생으로서의 공심으로 하세요. 그럼 움죽거리는 게 죽은 영가들도 공용으로 움죽거릴 거고 집의 마음이 공용으로 움죽거린다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공용으로 다 움죽거려서 어떤 거든지 요만한 거 하나 걸림이 없어요. 새로 바뀌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또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 살아나온 그 차원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댁이 공법을 쓰니까 그냥 공법대로 하나로 거기 붙어서 돌아가는 게 없이 그냥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살아요.

보림에 대해서

질문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보림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돈오 이후에 보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큰스님께서는 놓는 것도 보림이라고 하셨는데 보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속의 중생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 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둘 아니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나서 너풀거려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 군데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거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지금 텔레비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탤런트라면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라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놨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륙도 같은 데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 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둘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둘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둘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단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트여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죠.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든 없든 그대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느냐? 얻었다면 내놔 봐라." 이렇게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바쁩니다, 지금.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어 갑니다. 그래 자꾸 그것을,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놔야 하겠죠. 그리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15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는 법 없죠. 여러 애들 중에도 그냥 막 악을 쓰고 우는 어린애를 얼른 안아서 젖을 주게 돼 있거든요.

배 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에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 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옵니다.



대승불교의 '대승'이란 무엇일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 용어 가운데 '대승(大乘)'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어 mahayana를 의역한 이 말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널리 퍼진 말이지만 초기불교에서도 대승이란 표현이 쓰인 경우가 있다. 〈장아함경〉, 〈잡아함경〉 그리고 〈본생경〉 등에도 대승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 쓰인 대승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뜻에서 쓰인 존칭의 뜻을 가진 말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대승'과는 그 뜻이 다르다. 따라서 대승은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말이다.

물론 대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말이 〈증일아함경〉 등에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후대에 와서 증보된 내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승은 기존의 부파불교의 교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설해진 것으로 부파불교의 한계를 벗어나 고차원적인 교법임을 새롭게 천명하기 위해 내세운 말로 우등(優等)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대승 이전의 것을 소승(小乘)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대승과 소승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승(乘)은 수레나 배 등의 탈 것을 말하는 것이니, 대승은 많은 사람을 태워 준다는 뜻인 반면 소승은 한 두 사람의 적은 인원을 태워 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차이를 두고 대·소승을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대승이 일어난 시기는 마명과 용수의 생존 시기를 전후한 1~2세기경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승의 교법상 특징은 '법공사상(法空思想)'을 천명한 것이며, 또한 이타주의 수행관을 설한 '보살도정신(菩薩道精神)',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이 등장하는 '다불신앙(多佛信仰)'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전에 따라 대승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대승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一切智)와 자연지(自然智)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 지혜(無師智)와 여래지견(如來知見)과 두려움 없음(無畏)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안락을 누리게 하며, 천신과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 이를 대승이라 이름 한다."

또 〈금강경〉 '대승정종분'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기신론〉의 대승은 근원적 설명
"중생 마음이 法이고 대승" 강조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생겨난 것', '변화하여 생겨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의 일체 아홉 종류의 중생에 대해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해 주리라 하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에 든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 자아에 대한 고집, 인간에 대한 고집, 중생에 대한 고집, 수명에 대한 고집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상은 〈금강경〉에서 밝힌 대승의 올바른 종취(宗趣)이다. 이 대목을 〈금강경찬요〉를 지은 당나라 때 규봉 스님은 네 가지 마음으로 풀이했다. 일체 중생 모두에 대하여 제도하고자 하는 원력을 가진 마음을 '광대심(廣大心)'이라 하였고,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을 '제일심(第一心)', 중생을 제도하여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이 그대로인 마음을 '항심(恒心)', 일체 관념의 고집이 없어서 뒤바뀌지 않은 마음을 '부전도심(不顚倒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이 갖춰진 상태가 대승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두 경의 설명은 대승을 이타원력의 보살도에 입각해서 설명한 말이다.

〈기신론〉의 대승은 보다 근원적인 설명이다. 중생의 마음 자체가 바로 대승이라고 천명하였다. 중생의 마음이 법이고 대승이란 점을 특별히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불교의 일반적인 대의를 '마음은 본래 대승이다'라고 바꾸어 말한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제돼야 하나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㊳보시 인색함에 대해

施 ㊦品第八(시간품제팔)

不念恩人無有悲心。若無悲心不能行施。若不施者不能濟渡眾生生死。無悲心者無復親友。有悲心者能有親友。計我者以愛為體。救濟者以悲為體。心有重愛無有知者。有重悲心者亦無能知。若不行施覆蔽悲心。如以ø石乃知β為。若見苦厄者能行大施則知有悲心。 ㊀多者正使所親從乞則成怨憎。悲心多者假使怨家亦如親友。 ㊀多者雖施泥土重於金玉。悲心多者雖施金玉輕於草木。 ㊀多者喪失財寶心大憂惱。悲心多者雖有財寶無施處時心懷悲苦。復過於彼。(불념은인무유비심。약무비심불능행시。약불시자불능제도중생생사。무비심자무부친우。유비심자능유친우。계아자이애위체。구제자이비위체。심유중애무유지자。유중비심자역무능지。약불행시복폐비심。여이화석내지진위。약견고액자능행대시즉지유비심。간심다자정사소친종걸성원증。비심다자가사원가역여친우。간심다자수시니토중어금옥。비심다자수시금옥경어초목。간심다자상실재보심대우뇌。비심다자수유재보무시처시심회비고。부과어피。)

번역

보시의 인색함에 대한 품 제 8

남의 자비심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비심이 없으면 능히 보시를 행할 수 없으며, 만약 보시하지 않으면 능히 중생을 생사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친한 이가 없고, 자비심이 있으면 능히 친한 이가 있게 됩니다. 나를 살피는 이는 사랑으로써 근본바탕을 삼고, 구제하는 이는 자비로써 근본바탕을 삼아야 합니다. 마음에 거듭된 사랑이 있어도 아는 이가 없고, 거듭 자비심이 있어도 능히 알 수 없나니, 만약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사라지나니, 돌에 새긴 글로써 진위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고통과 재앙 당한 이를 보고 능히 큰 보시를 행한다면 곧 자비심이 있는 줄 알게 되나니,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친절하게 구걸하는 이에게로 나아갈지라도 원망과 미움만 이룰 뿐입니다. 자비심이 많은 이는 가령 원수일지라도 친한 벗처럼 여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비록 진흙을 주면서도 금이나 옥처럼 중히 여기지만, 자비심이 많은 이는 비록 금과 옥을 베풀어도 초목처럼 가벼이 여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많은 이는 재물과 보배가 없어지는 것에 마음으로 크게 근심하고 괴로워하지만, 자비심이 많은 이는 비록 재물과 보배가 있어도 보시할 곳과 때가 없어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되 다시 그것보다 더합니다.

해설

마라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다. 한명은 '욕망'이라는 이름이었고, 또 한명은 '부드러움'이라는 이름이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성욕'이라는 이름이었다. 6년의 고행을 뒤로하고 보리수 아래 앉은 싯다르타 앞에 그들은 어여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땅에 사는 인간치고 천상의 어여쁨을 이길 자 그 누구랴.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이 어디 있으며, 남들보다 부드러운 옷과 부드러운 음식에 탐닉하지 않을 이 누가 있을까. 어느 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는 어쩌면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이다.

진흙이나 돌을 세상에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와, 금이나 보석을 진흙이나 돌처럼 여기는 이는 어디에 속하는가. 과연 누가 스스로를 위해 울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구제 되어야 한단 말인가. 거기에 제바라보살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람처럼 머묾 없이

비워라! 버려라! 놓아라! 일생을 오롯이 수행해온 노스님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주인공인 노스님들께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주지에 선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다. 구차스레 따지자면 주지는 행정의 사판승(事判僧)이요 선원장은 수행의 이판승(理判僧)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주지와 선원장을 겸직한지 사반세기가 넘어도 끄떡없이 장기집권(?)을 누리는 경우가 엄존한다.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주지로 임명되고 선원장을 맡은 것은 그분들의 젊은 시절이었다. 그런데도 칠십을 넘겨 팔순을 바라다보는 노안(老顔)에는 저승꽃이라는 검버섯이 늘고 있는데도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美德)은 찾기 어렵다.

몸에 밴 겸손과 자비에는 마땅히 실천이 따라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머무는 모습보다 물러나는 모습이 더욱 개운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세간(世間)이던 출세간(出世間)이던 집착이 모든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비우고 버리며 놓는 법문이 구두선(口頭禪)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이다.

나(我)아니면 안 된다는 우려는 아집(我執)에 뿌리를 내린 자기 방어적 치졸한 고집일 뿐이다. 다수 대중의 뜻으로 구실을 삼거나 핑계를 일삼는다면 더욱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일이다. 쉴 때는 쉬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수행자의 으뜸 덕목일터.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지 않는 순간까지 현직을 유지하며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 해탈자의 자유인은 아닐 터이다. 행여,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 붙힌다면 소위 수행승이라는 분들이 노후대비라며 비상금을 챙겨 쌓아둔다면 그들은 속물근성 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업덩이 중생일게 뻔한 일이다. 노후 대책은 마땅히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한다. 소유욕에서 자유롭도록 부단히 노력 정진하며 개운한 삶을 연습해 실천해야한다. 머쓱한 일이지만 인도와 중국, 티베트 등에서 15년을 머문 후 한국에 온 후 13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나의 유일한 거래처 우체국 통장엔 남아있는 돈이 백만원 밑에서 맴돌고 있다.

사자암 주지로 12년 머물고 있어 떠날 날을 당길 생각이지만 12년 동안 권선문 한 번 돌린 적 없고 5년이 넘도록 공양주 없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49재 비용은 쌀 한 말이었고 대학입시 합격기도는 12년 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생일불공 등은 스스로 하게했고 신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일체 주지 않았다.

시장과 국회의원을 전화로 불러 사자암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차(茶)를 마시며 거뜬하게 25억 원 상당을 사자암 공사에 사용했다. 지역 기관장들에겐 엄격한 스승이요 이유 있는 회초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나의 생활을 오픈하고 살려한다.

숨기거나 드러낼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개운하게 떳떳하게 챙기거나 쌓아두는 일 없이 자유인으로 살려한다.

'비워라! 버려라! 놓아라!'는 이제 구호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앞세워 놓고 실리(實利)를 슬그머니 챙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터이다.

'비움·버림·놓음'이 구호로 끝나서야
소유에서 자유로운 수행자가 그립다

중국의 백장선사처럼 하루 일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않는 정신으로 게으름을 병으로 알며 실천하는 삶을 이어 나가야 할 터이다. 천만 원이 넘는 천연 실크로 만든 장삼과 가사를 몸에 두른 채 법상(法床)에 오르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스님은 스님다워야 스님이다. 신앙을 흥정대상으로 여겨 49재 비용 등을 가중시키거나 신도들을 먹이사슬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매달 경제 부담을 안기는 작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누구를 방장과 조실로 모실 것이냐를 경쟁으로 선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할래'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자리잡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또한 방장과 조실로 계신 어른 스님께서 어느 날 문득 방장과 조실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자유인으로 사시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바람처럼 머묾 없이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텅 빈 충만의 수행자가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禪을 線으로 표현하다

禪과 현대미술
⑱ 아그네스 마틴 (Agnes Martin)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긴 호흡을 인지하며 스스로 깊은 내면에 침잠하며 정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과 찬사를 보내며 그러한 정신성을 체험하기를 희망한다.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 1912~2004, 미국)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20대에 미국으로 이주하며 미국에서 작가생활을 하였다. 미국 추상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게 한 것은 선(禪) 사상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동양사상, 특히 선사상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녀는 마치 수행자처럼 삶을 영위하였다. 지극히 절제된 삶을 추구하는 그녀는 자신의 예술도 정신성의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이 체험한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술적 행위를 하였으며 그녀에게 예술은 또 다른 방식의 수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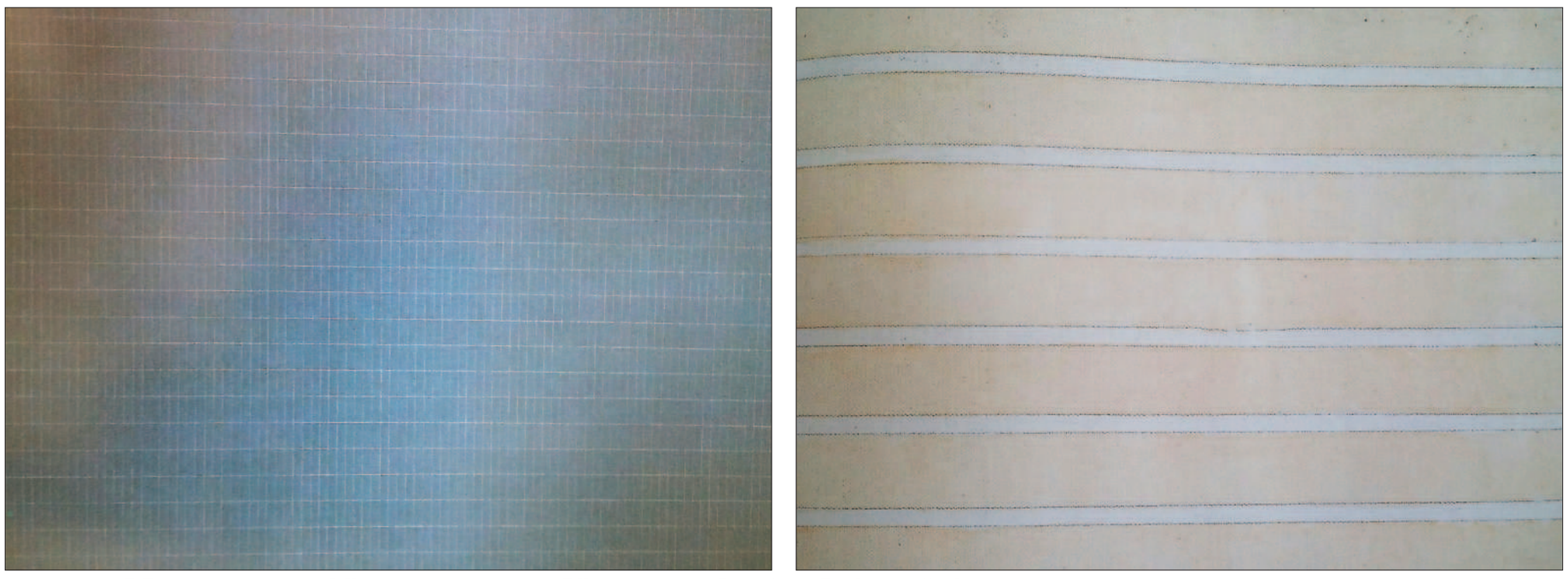
당시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마크 로스코, 바네트 뉴먼 등과 교류하며 추상표현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스스로 자신만의 예술성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강렬한 단색을 통하여 정신성을 표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단색과 미색을 사용하여 조용하고 고요한 정신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의 작품에는 어떠한 대상, 나무 등 어떠한 것도 형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빛, 광명이며 어떠한 고통도 소멸시키는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형상 없는 형상을 통하여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빛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마틴은 말하고 있다.

〈Night Sea, 1963, Oel auf Leinwand mit Blattgold, 183x183cm〉 '밤 바다'로 제목을 붙인 이 작품은 그녀의 정신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녀가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좌선을 행하여 느껴지는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막막한 대해에 작은 선을 그으며 내면의 모습을 관조하는 작품이다. 커다란 화면에 작은 선을 반복해서 그을 때 나타나는 작은 공간들이 반복되며 전체적으로 커다란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좌선을 하며 자신의 호흡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하며 마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조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밤바다는 무명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두운 밤에 바다를 보면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가. 아무런 형상도, 색채도, 방향도 구분하기 힘든 적막의 모습이다. 그녀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이처럼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관조하며 자신이 조그마한 빛이 되어 누군가에게 광명의 빛으로 비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 〈Night Sea(1963 · 사진 왼쪽)〉와 〈Untitled(1999 · 사진 오른쪽)〉의 모습. 후기로 갈수록 선이 비정형화되며 자유로워진다.

추상표현주의 · 禪에 깊은 감화
절제된 삶을 표현 방법 활용해

선 하나에 온 정신 · 마음을 투영
초기엔 정형 · 후기엔 비정형 특징
선은 수행이며 진리를 찾는 방법

자신의 삶의 방식도 절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었으며 그녀를 가까이에서 본 많은 사람들이 그녀는 마치 동양에서 온 수행자 같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그녀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자유롭고, 창의적이지만 절제와 수행을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틴은 선을 하나 긋기 위하여 온 정신을 투영한다. 그 선은 그녀에게는 수행이며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긋는 선들은 자세히 보면 선과 면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를 느낄 수 있다. 바이올린 줄을 적정한 긴장 상태로 만들어야 좋은 소리가 나듯이 그녀가 긋는 선은 면과 면 사이의 긴장을 유발시켜 그 속에서 최고의 극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무아의 경지인 삼매(三昧)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작은 선은 그녀가 생각하는 마음의 상징이었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선은 금방 삐뚤어진다. 즉,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작은 선을 하나 긋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명상을 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Untitled, 1999, Acrylic, Grafit auf Leinen, 31x31cm〉 이 작품은 그녀의 정신성의 극점을 보여주는 후반기 작품이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마틴은 자신의 정신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선을 긋고 있다. 선은 그녀에게 선(Line)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은 수행이며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시간 선을 긋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은 점점 더 고요해졌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광명으로 다가가게 된다.

필자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듀 센터에서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색도 미색이라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작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여서 그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 줄로만 생각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스쳐지나가는 듯한 강한 느낌이 왔다. 그러면서 어제 본 마틴의 작품을 다시 한 번 꼭 보고 싶은 강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찾은 퐁피듀에 있는 그녀의 작품은 어제 내가 본 그 작품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강한 감동을 주었다. 작품은 위에서 보는 작품과 비슷하나 고요하면서도 정적인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빛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을 그 작품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감동이 이어졌다.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게 느껴지며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 작품이 보고 싶어진다.

작품이 관객의 마음을 끄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성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극을 주지 못하다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작품을 보는 순간 줄탁동시처럼 큰 감동이 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작품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받거나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인식의 범주가 없을 때에는 어떠한 자극을 주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색채나 형상이다. 색채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특히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단색의 강렬한 색채는 자신의 성향과 체험이 결합되며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경험한 즐겁고 행복한 좋은 일과 연관되는 색채는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형상을 보았을 때 깊은 감동을 받는다.

필자가 원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원형은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되며 그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원형의 이미지는 강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즉, 형상이 주는 상징적, 경험적, 인지적 특성들이 결합되어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무의식적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퐁피듀에서 필자가 보았던 마틴의 작품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필자가 독일에 유학하던 시절이라 필자는 정신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작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깊은 감동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녀의 작품이 마음속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다.

작품은 작가 마음의 표현이다. 작가가 선을 긋는다면 작가의 마음에 선은 전부인 것이다. 선을 통하여 세상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들이 선택하는 표현의 방법이나 기법들은 평범해보여도 그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정신성은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이 단순하고 색채가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정신성이 더욱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자신이 인지하는 깊은 정신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평행이론처럼 작가의 개별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동일한 색채나 기호들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관객으로서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색채나 동일한 형상, 기호를 사용하였다 하여도 작가의 특성에 따라서 그 내면적, 정신적 관점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작가의 작품에서 제작 시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그네스 마틴의 경우 초기에는 정형화된 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정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색채는 거의 무채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시간이 흘러도 색채가 가지는 정신적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선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인지해 나아가는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색채는 마음바탕처럼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평생을 수행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술가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간 아그네스 마틴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의 정신성을 인정받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너무나 원초적이고 미세한 감각들이 깊은 호흡하며, 발산되는 강한 정신성이 무채색의 면과 가느다란 선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삶과 예술의 모습을 새롭게 형성해 나아가고자 한 그녀의 생각과 노력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깊은 감동으로 느껴진다. 그녀가 수행을 하며 인지하고 느낀 정신성의 깊이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삶의 존재방식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 결혼 무료상담 : 초혼 · 재혼 · 탈북자 특별우대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80번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화엄경5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였다. 이러한 안목으로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사경 외길 인생 40년 발자취를 보다

사경을 예술로 끌어올린 외길 김경호 작가의 최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은 외길 김경호 전통사경 회고전 '잉불잡란격별성(仍不雜亂隔別成)'을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라아트센터 5층에서 개최한다.

김경호 작가가 서울에서 갖는 전시는 2008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초청전시회 이후 8년만으로 작가에게도 이번 전시가 생애 최대 규모의 전시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스스로 꼽은 생애 최고 작품 20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된다.

김경호 작가는 "전통사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한 재현이 아닌 이를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면서 "이번 회고전을 마친 후에는 소장자에게 대여해 전시하는 작품 1점을 제외한 최고의 작품 모두 세계적 박물관에 기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3-1981 **신선민 기자**



300년 전 '이모티콘' '시전지' 전 열린다

카카오톡 '라이언', '무지' 등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모티콘. 이런 이모티콘과 비슷한 것이 300년 전에도 있었다면? 옛 선비들이 문양이 섞인 편지글을 쓸 때 사용했던 '시전지'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원주 고판화박물관에서 '선비의 예술-시전지' 전을 개최한다.

시전지는 글이나 편지를 쓸 때 사용한 작은 종이로 대부분 판화를 이용해 당시 선비들이 좋아한 난초, 매화 등의 문양을 새겨넣었다.

강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시전지와 명화 복제집인 화보(畵譜) 관련 자료 200여점이 공개된다.

한선학 관장은 "특별전을 통해 곱게 새겨진 목판화 종이에 적은 시 한편을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에게 보내는 여유를 누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즉석질문 시간에 스님들이 청중들의 고민을 듣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LED머리띠 등을 하고 즐거워 하는 참석대중들(사진 위)과 재즈콘서트 장면(사진 아래).

'힐링멘토' 스님들이 함께 한 '행복토크'

9월 12일 부산서 진행된 BTN '세상만사' 공개방송 화제

애청자 감사행사로 열려

토크 및 재즈음악 등 선보여

'우유빛깔 주석 스님', '미소천사 만초 스님', '행복의 와이파이 심산 스님', '조계종 숲돌이 하림 스님'이 부산에 떴다. BTN 인기 프로그램 '우리들의 토크쇼-세상만사(이하 세상만사)' 공개방송이 9월 12일 부산 경성대에서 진행된 것이다. 번쩍이는 LED리본 머리띠를 낀 불자들의 환호 속에 방송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 진행됐다.

이번 공개방송은 '세상만사 시즌 1'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애청한 청취자들을 위한 감사행사로 열렸다.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부산지역 불자 500여 명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공개방송 1부 주제는 '함부로 행복하게'였다. MC인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만초 스님(통도사),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 주석 스님(대운사 주지)은 힐링토크를 진행했다. 불자들은 스님들의 말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무대의 막이 내릴 때마다 직장인 밴드 쵸이가 아름다운 재즈 음악을 들려줬다.

만초 스님은 '행복 이뭐꼬!'라는 주제로 시작을 알렸다. 만초 스님은 "행복은 우리 삶의 주제이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찰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을 이 가슴이 가장 영험한 도량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스님은 첫 등장에서 원숭이 인형 두 마리를 가지고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원숭이를 데려 나오는 동안 원숭이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 힘들었다는 스님의 설명에 청중은 또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주석 스님은 'let it go'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마음의 응어리와 분노를 해결할 방법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심산 스님은 '당신의 행복 온도는 몇도 입니까?'를 주제로 힐링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님은 행복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는 '세상만사 그것이 알고 싶다'로 진명 스님이 특별 MC로 초대돼 1년 간 방송된 세상만사의 숨겨진 이야기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아울러 즉석질문 시간에서 스님들은 '대불자 고민해결사'로 그동안 갈고 닦은 내공을 숨기지 않고 보여줘 큰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진행 시간 동안 스님들의 편안한 토크에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정희(64 · 부산 용호동)불자는 "스님들의 모습을 뵈면서 행복했고 진솔한 모습에 더욱 감동이 되는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세상만사 공개방송은 1부 2부로 각각 나눠 10월 5일부터 6차례 방영된다. **하성미 기자**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세계의 불교영화들 부산서 만나자

태국, 부탄 등 불교영화 9편 출품 눈길

한국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단순한 상업 영화만이 아닌 독립 · 예술 · 다큐 영화들이 소개돼 영화 매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9편의 불교영화가 스크린에 걸린다.

방랑(Wandering) 가장 많은 불교영화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단연 '아시아 영화의 창'이다. 눈길을 끄는 영화로는 태국 분송 낙푸 감독의 '방랑(Wandering)'이다. '방랑'은 좌절의 굴레인 속세를 뒤로하고 승려로 출가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감독은 자신의 사찰 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을 영화로 투영시킨다. (메가박스 해운대 6관 10월 8일 오후4시 · 4관 10월 10일 오후 2시 · 3관 10월 10일 오후2시 · 9관 10월12일 오전11시)

닝코 스님의 수난 '아시아 영화의 창'을 통해 소개되는 니와츠키노 노리히로 감독의 '닝코 스님의 수난(Suffering of Ninko)'은 일본 구전 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잘 생긴 외모로 모든 여자들이 반해 문제가 된 주인공 닝코 스님은 수행을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지만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 사무라이와 함께 길을 나선다. (CGV 센텀시티 6관 10월 9일 오후8시 · 7관 10월14일 오후1시30분 · 메가박스 해운대 4관 10월12일 오후 2시 · 3관 10월 12일 오후2시)

선위의 영혼 중국 장양 감독의 '선위의 영혼(Soul on a String)'은 티베트 작가 타시 다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티베트의 아름다운 설원을 배경으로 죄악, 업보, 용서에 대한 티벳인의 삶과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메가박스 해운대 TM관 10월7일 오후 4시30분 · 7관 10월7일 오후 4시30분 · 9관 10월9일 오후 7시30분 · 9관 10월13일 오전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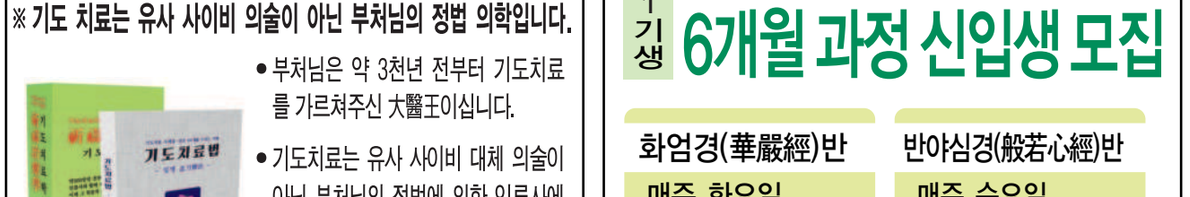
헤마 헤마 승려이자 영화감독인 키엔체 노르부의 '헤마 헤마(Hema Hema: Sing Me a Song While I Wait)'도 눈길을 끈다. 미스터리 드라마 내면에는 인간의 행동과 그 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메가박스 해운대 6관 10월8일 오후1시 · 1관 10월13일 오후4시 · 2관 10월13일 오후4시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2관 10월10일 오후1시)

법복 '아시아 단편 경쟁'에 출품된 작품들도 눈여겨볼만 하다. 미얀마 웨라 아웅 감독의 '법복(The Robe)'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하던 스님이 무슬림 가정에 몸을 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메가박스 해운대 TM관 10월8일 오후2시 · 7관 10월8일 오후 2시 · 2관 10월12일 오후7시30분 · 1관 10월12일 오후7시30분 · CGV 센텀시티 3관 10월14일 오전10시)

선두 한국 불교영화는 다큐멘터리에 집중돼 있다.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출품된 '선두(SUN, 원호연 감독)'는 사찰에 들어온 두 소년의 이야기다. 감독은 두 소년의 사찰 이야기를 통해 인연이 만들어내는 생의 파장을 조명한다. (CGV 센텀시티 3관 10월9일 오후4시30분 · 메가박스 해운대 9관 10월11일 오후5시 · 영화의전당 소극장 10월13일 오전10시)

이밖에도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슈바시시 부티아니 감독의 '호텔 샐베이션', 티베트 고승의 환생으로 태어난 어린 앙뚜의 삶을 그린 문창용 · 전진 감독의 '앙뚜(Becoming Who I Was)'도 관심을 가지고 볼만 하다. 자세한 영화 정보는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www.biff.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되는 분송 낙푸 감독의 '방랑(Wandering · 사진 왼쪽)'과 니와츠키노 노리히로 감독의 '닝코 스님의 수난(Suffering of Ninko · 사진 오른쪽)' 스틸컷. 사진제공=부산국제영화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 환영 !!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 1 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ㅁ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9.14~2016.9.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불교입문-도표로읽는	이자랑	민족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주)조계종출판사
4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8	이뭐꼬-마음에 새겨듣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	퇴옹 성철	장경각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주)조계종출판사
10	짧지만큰가르침(성철스님의)	원택엮음	장경각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중국 격변기서 바라본 〈금강경〉

강미농의 금강경 강의

강미농 지음 | 양관 옮김 | 담앤북스 펴냄
5만 8천원





'신해행증' 기준 내용 구분 해설
한글자마다의 꼼꼼한 해석 돋보여
올바른 믿음 바탕한 수행법 제시

〈금강반야바라밀경〉(약칭 금강경)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전이다. 워낙 유명한데다 다른 경전에 비해 분량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읽는다. 그러나 그 뜻을 바르게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글자 수는 적지만 글자 하나 하나에 담긴 뜻이 워낙 심오해서다. 〈금강경〉에 대한 고승 대덕들의 주소(註疏)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기존 해설서들은 대부분 소명 태자의 32분을 따르는 반면 강미농 거사〈사진〉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관점으로 내용을 분류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요하리만치 꼼꼼히 해석한다. 감히 '불교 대백과'라 불러도 손색 없을 만큼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는 물론 주요 경전과 논서를 아우르며 〈금강경〉의 참뜻을 밝힌다. 총 1,116쪽의 방대한 분량,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해석과 독보적인 논리가 기존 해설서들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미농 거사가 경장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던 데는 좋은 계기가 있었다. 사서를 맡고 있는 경사도서관에 소장된 돈황석실사경 8천여 권의 교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맡은 것이다. 이후 강 거사는 지인들과 불교 단체를 설립, 대승경전 강의와 염불 예참 지도에 힘썼다. 이 책은 그가 1934년 여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로 보인다.

첫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기준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해설한 것이다. 기존 〈금강경〉 강설이나 해설서는 대부분 소명 태자의 32분을 따른다. 강 거사는 화엄종의 달천 법사가 쓴 〈신안소〉에 의지해 '신해행증'으로 경을 과판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서는 경의 제목과 역자인 구마라집을 소개한다. 2부서 5부까지는 믿음 · 이해 · 수행 · 증득(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설한다. 전반부인 2부와 3부서는 경계의 측면서 '머무름 없음(無住)'의 바른 뜻을 밝힌다. 이를 통해 반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후반부인 4부와 5부서는 마음의 측면서 '머무름 없음'의 이치를 밝힌다. 이를 통해 바른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둘째, 대승불교의 주요 종파와 경전, 논서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인다. 부처님이 전한 '반야'의 진리를 바로 알리기 위해 강 거사는 대승불교의 모든 종파와 경전을 아우른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공과 유식 사상은 물론 천태종 · 화엄종 · 정토종 · 선종 · 밀종의 관점을 두루 접목해 해설한다. 또한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과 같은 주요 경전은 물론 〈대승기신론〉 〈금강경신소〉등 주요 논서의 내용을 주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유가, 도가의 사상과도 비교해 〈금강경〉의 면면을 자세히 살핀다.

셋째,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설명이다. 강 거사는 당나라 사본을 기준으로 주요 〈금강경〉 판본들과 해설서 등을 비교 검토해 당시 유통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은 인물로 유명하다. 강 거사의 설명대로라면 우리나라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도 빼야 할 글자가 여럿이다. 예를 들면, 제13분의 '시명반야바라밀(是名般若波羅蜜)' '불가이삼십이상 득견여래(不可以三十二相 得見如來)' 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강 거사는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글자는 다 깊은 뜻이 있다. 결코 중복된 것이 없다"며 자주 반복된 글자라도 전후 맥락을 따져 그 의미를 상세히 밝힌다. 범고농 거사가 서문서도 밝혔듯이 "다른 사람들은 경에 나오는 여래(如來), 불(佛), 세존(世尊), 불야(不也), 불고수보리(佛告須菩提) 등을 소홀히 했으나 거사는 번번이 그 수승한 뜻을 밝혔다." 또한 얼핏 읽으면 같은 말 같지만 알고 보면 의미가 다른 말들, 이를테면 제2분에서는 '발심(發心)'이라고 하고 제10분에 이르러서는 '생심(生心)'이라고 하는 이유, 제4분에 나오는 '부주(不住)'와 '무주(無住)'의 차이 등도 상세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강 거사는 책의 곳곳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 거사가 권하는 주요 수행은 염불이다. 기복을 바라는 염불이 아니라 '반야'를 바탕으로 한 염불이다.

이 책을 번역한 동화사 승가대학 강주 양관 스님은 "〈금강경〉속에 담긴 참뜻과 차이를 낱낱이 파헤칠 뿐만 아니라 수행과 부처님의 일상 가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강미농은?

1900년대 초반, 중국 격변기 불교 연구과 포교에 온몸을 던진 수행자다. 1872년 강소성에서 태어난 강 거사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다. 평생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고 한다. 1902년 31세 때 향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무렵 아버지의 운명으로 세상사 무상함을 깨닫고 불교 공부에 정진했다. 1918년에는 정식으로 불문에 귀의, 선종의 대덕 미군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보살계를 받았다. 1930년대 초반, 강 거사는 지인들과 불교 단체인 '성심연사'를 결성, 사장으로 추대돼 대승경전을 강의하고 염불 예참을 지도했다. 1934년 여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금강경〉을 강의했으며, 이후 그 내용을 정리하던중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세수 67세였다.

효봉 대선사 수행 역정과 일대기 소설로

붓다가 된 엿장수

이정범 지음 | 동쪽나라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을 역임한 효봉 대종사의 일대기를 소설 형식으로 펴낸 책이다. 올해로 열반 50주기를 앞두고 있어 생전의 효봉 큰스님이 남긴 발자취와 그가 추구했던 사상을 널리 선양하려는 취지가 돋보인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효봉 스님 관련 저술과 에세이,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두루 섭렵하고 생전에 효봉 스님을 직접 시봉한 스님과 불자들의 회고담을 취재하며 3년여 동안 원고를 썼다. 그런 과정서 기존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말해 소설이란 형식을 갖췄으면서도 개항기, 일제강점기, 6 · 25 전쟁, 근대화 시기 등 효봉 선사가 살던 시기의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과 개인 일상을 적절히 배치해 효봉과 당대의 고승들이 실현하던 이념과 시대적 한계 등을 입체적이며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1888년, 평안남도 양덕군서 출생한 효봉 스님은 부유한 집안 환경을 배경으로 비교적 유복한 성장기를 보냈다. 평양고보,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 졸업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관이 된 그는 평양복심법원에 재직 중 한 독립군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뒤 심한 양심의 가책과 가치관의 혼동을 느낀 채 가출을 하고 만다. 이후 서울 남대문서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엿장수가 된 그는 3년 동안 한강이남 지역을 유랑걸식하며 참회와 하심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다가 홀연히 금강산 신계사서 당시 '금강산 도인'으로 추앙받던 석두 선사에게 출가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서른여덟, 늦깎이인 그의 수행은 생사를 걸 만큼 치열했다. 깔고 앉은 방석에 엉덩이 살이 들러붙어 진물이 흐를 정도의 지독한 수행으로 '절구통 수좌'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깨달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여긴 효봉 스님은 끝내 금강산 법기암 주변에 출입문 없는 토굴을 만들고는 스스로 유폐됐다. 그때부터 참선 수행에 매진하던 효봉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엿장수로부터 깨달은 이가 된 효봉 스님은 은사 석두 선사뿐 아니라 당대 제일로 추앙받던 고승들로부터 인가 받은 뒤 남쪽 송광사로 내려가 10년간 주석하며 구름처럼 모여든 후학들을 제접했다. 송광사는 한국불교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 운동을 펼친 역사의 도량이자 지눌을 비롯한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이었다.

효봉 스님이 자신의 법호(효봉)와 법명(학눌)을 새로 바꾸고 제2의 정화결사 운동을 펼친 것은 보조국사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말한다. 그는 해방 이후 가야총림 방장, 통합종단 초대 종정 등으로 추대돼 오늘날 조계종단의 밑거름이 됐다. 늘 참선수행과 지계, 절약 정신을 일깨운 그는 구산, 고은, 법정을 비롯한 수십 명의 직계 제자들을 두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와 6 · 25 전쟁 등으로 상처받던 수백만 민중들이 의지한 정신적 지주였으며, 현대 한국불교의 새벽 봉우리로서 지금도 후학들을 굽어보고 있다. 1966년 10월 15일(음력 9월 2일) 노환으로 열반할 때까지 그의 평생은 법호인 효봉(새벽봉우리)처럼 오롯하고 청정했다.

김주일 기자

저자가 체험한 '돈오와 보림' … 최상승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

윤기붕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3800원



이 책은 대구와 서울에 즉심선원(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을 열고 수행하는 저자가 자신의 돈오(頓悟: 단박 깨침) 체험과 오후(悟後: 깨달은 이후의 닦는 바 없이 닦는 공부) 수행에 대해 법문한 내용을 정리한 선(禪)과 마음공부의 지침서다. 갈수록 물질문명에 찌들어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구도의 길을 걷는 공부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병에 들면 병을 고치고 일이 생기면 바로잡는 것처럼 고통 역시 없애고 싶어 한다.

이 '한 법'을 깨달으면 인간이 갖는 모든 정신적 고통과 때론 육체적 고통의 일부까지도 단번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으뜸가는 방법이어서 고통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깨달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떤 선사가 말한 것처럼 '도를 알기는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깨달으려고 마음만 낸다면 말이다.

그럼 깨달음은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인가?

저자는 첫째.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일체가 한 법이니 나 역시 개체의 육체에 갇힌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한 법 그 자체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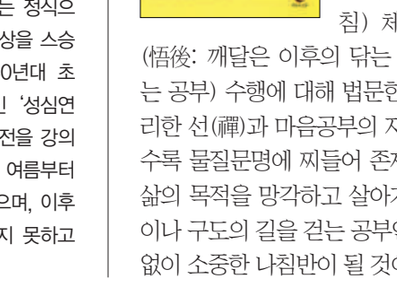
마조스님께서는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은 아무리 고집을 부리더라도 기댈 곳이 없으면 그대로 꼬리를 내린다. 그래서 진리의 실상을 알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음을 알고 다시는 준동(蠢動)하지 않고 꼬리를 내린다. 그리고 한번 꼬리 내린 생각은 자신이 얻은 자유와 평화에 정착(定着)해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행복의 열쇠요 자유의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바란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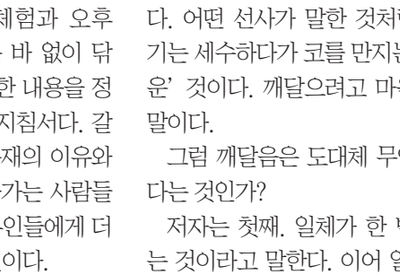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싱가폴 불교대학, 390억 건물 신축

콩멩산 포칵시 사원 위치
명상홀·농구코트 등 6층 규모

졸업자 40명서 100명으로 증원
"불교교육 허브역할 할 것"



싱가폴 불교대학 신축 건물은 390억 규모 6층 건물로, 농구코트, 운동장, 명상홀, 사무실, 교실을 비롯해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출처=스트레이트타임즈닷컴

싱가폴 불교대학이 390억 원 규모의 빌딩을 완공, 그 위용을 드러냈다. 불교대학은 지역의 스님들과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싱가폴 불교대학은 콩멩산 포칵시 사원의 식광승 스님이 설립한 학교로, 스님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유일한 곳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싱가폴 비샨길 브라이트 힐에 위치한 콩멩산 포칵시 사원(Kong Meng San Phor Kark See Temple)에 자리했다. 2년여 시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은 6층으로 농구코트, 운동장, 명상홀, 사무실, 교실을 비롯해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포함한다.

또한 대학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설립 첫해 40명으로 배출하던 졸업자 수를 매해 마다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싱가폴 불교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2년에 한번 50명의 학생들이 수료하고 있다. 70명의 학부생들과 11명의 대학원생이 이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신축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싱가폴 불교대학은 지난 9월 10일 리센룽 싱가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원 행사를 열었다.

리센룽 총리는 불교대학 빌딩 완공을 축하하며 "불교는 싱가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교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생필품을 비롯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행을 펼쳤다"며 "이번 불교대학의 완공이 싱가폴 불교 지도자들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이곳 비샨길 지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광승 스님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광승 스님은 다문화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웃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싱가폴에는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과 종교적 의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폴 불교대학 부총장인 촨승 스님은 불교대학이 중국어와 영어로 운영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은 스리랑카의 켈라니아 대학, 태국 최대 불교대학교인 마하출라롱콘라자위디얄라야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촨승 스님은 "우리 불교대학은 교육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싱가폴에 자리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베트남과 같은 불교국가의 스님들에게 점점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은 스님들에게 장학금 제공 뿐 아니라 교과서와 숙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불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식광승 스님은 "불교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사찰의 수도원 행정업무를 비롯해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라며 "한정된 싱가폴 불교의 자원으로 불교 교육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소녀 및 여성 인신매매, 그만두어라"

여성인권 선양 '쿵푸' 비구니 스님들 자전거 횡단



불교국가 비구니 스님들이 네팔과 인도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4000km를 횡단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아이비타임즈

여성인권 선양을 위한 자전거 횡단으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이번엔 네팔 및 인도의 인신매매 행태를 알리기 위해 4000km 횡단에 나서 화제다.

영국 언론 '아이비타임즈'는 "티베트 · 네팔 · 부탄 · 인도의 비구니 스님들이 히말라야를 가로질러 인도와 카트만두를 자전거로 횡단한다. 이는 인도와 네팔서 벌어진 여성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다. 2015년 일어난 2번의 지진으로 4만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잃었으며,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어린 소녀들은 인신매매 집단에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횡단에 참가하고 있는 지그메콘촉랴모 스님은 "지난해 네팔 지진 발생 후, 네팔의 많은 소녀들이 가난한 집의 생계를 위해 팔려나가고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는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고 싶었으며,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은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전거 횡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횡단은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룩파(drukpa)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나선 4번째 자전거 횡단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네팔 카트만두서 출발해 인도 고라크푸르, 파트나, 라즈기르 지역을 거쳐 인도 뉴델리서 첫번째 일주를 마친 바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용기를 내어 횡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드룩파 수장 걀왕 드룩파(Gyalwang Drukpa)의 격려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드룩파 종단과 협업을 펼치고 있는 캐리리 '리브투러브(Live to Love)' 자선단체장은 "전통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매우 다른 대접을 받아왔다. 그들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으며 운동도 할 수 없었다"며 "걀왕 드룩파 스님은 이런 관습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비구니 스님들의 리더십 함양과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걀왕 드룩파 스님은 "동남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는 여성존중 및 동등한 인권가치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 불교영화 "진짜 스님 출연" 주목

닥터 비주 감독, 인도 · 티베트 등서 촬영 돌입



닥터 비주 감독. 사진출처=saddahaq

스님들이 출연하고 고대 인도어로 말하는 불교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인도 언론 'Times of India(TOI)'의 9월 16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닥터 비주(Bijukumar Damodaran)는 불교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Sound of Silence)' 제작에 돌입한다. 닥터 비주 감독은 그간 길거리 청소부 이야기를 다룬 '네임즈 언노운(2014)', 강력살충제 피해를 다룬 '버즈위드 라지 윙즈(2015)' 등 영화를 제작해 영화의 정형화된 양식을 탈피했단 평을 받았다.

닥터 비주는 "한 소년이 승려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그려낼 예정"이라며,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및 티베트 등서 촬영할 것이라 밝혔다. 영화 촬영팀은 이미 히마찰프라데시서 촬영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영화는 감독의 모국어인 말라야람(인도 최남단 케랄라 지방어)으로 제작되지 않는 최초의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대사는 힌두어, 팔리어, 티베트어로 이뤄진다. 또한 닥터 비주는 현지 스님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다.

닥터 비주는 "나의 이전 작품서 열연한 마스터 고바단이 이번 영화서도 주인공인 승려 역할을 맡는다"며 "또한 히마찰과 뭄바이 지역 배우들을 비롯해 승려들을 영화에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주 감독은 마오주의(마오쩌둥주의)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웬더 우즈 블룸(2016)'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아름 기자

비아시아 지역 최초 사원 90년 맞아

영국 '런던불교사원' 9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비아시아 지역 최초 사원 런던불교사원은 90주년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더 선데이 타임즈

비아시아 지역서 최초로 세워진 '런던 불교 사원'이 90년 역사를 맞아 전시회를 열었다.

영국 주간지 '더 선데이 타임즈'는 9월 17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출신 종교부흥 운동가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세운 런던불교사원(London Buddhist Vihara)이 90년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7일 간 진행된 이 전시회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영국불교회장 데스몬드 비돌프 박사를 비롯해 이웃종교인들도 많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런던불교사원은 비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 불교 사원으로, 불교를 서방에 전파해 왔다. 현대에 들어 '영국 불교 전승의 중심점'으로 널리 알려지며, 현재 영국 태생 스리랑카계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사원의 현 주지 보고다 시라위말라 테라 스님은 "설립자 다르마팔라는 불교를 전혀 모르던 서방세계에 고귀한 가르침을 전달했다"며 "7일간 전시되는 사진들이 위대한 업적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1891년 인도서 파괴된 사리탑과 조각품을 목격한 후 "인도서 불법(佛法)의 횃불을 다시 점화해 성지를 회복했다"고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다. 이후 힌두교에 의해 박탈당한 불교 사원 수호활동 및 해외 포교를 이어가던 중, 1925년 영국서 잡지를 발행하고 이듬해 '런던 불교 사원'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 최초 불교뮤지컬, 오프브로드웨이로

'보리수나무 아래', 내년 상반기 영어버전 세계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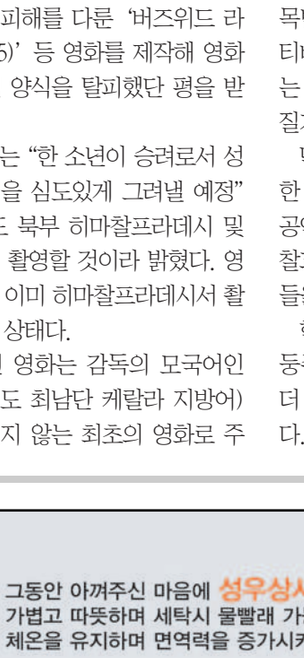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대중화한 세계 최초 불교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Under the Bodhi Tree)'가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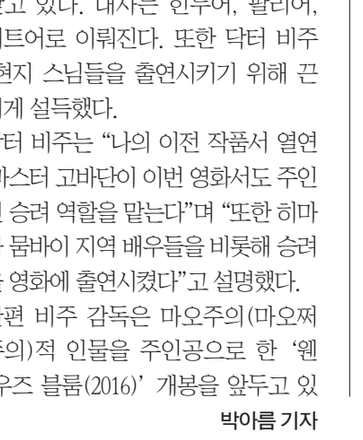
'미주 한국일보'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보리수나무 아래'는 내년 여름 한국서 첫 선을 보인 후, 상반기 오프브로드웨이서 영어버전 세계 초연을 계획한다. 불교 예술단 '무소의뿔' 대표 이진구 씨가 작곡가 겸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그의 부인이자 작가 겸 작사가인 송연경 씨가 한국어 가사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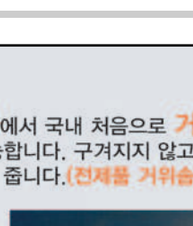
특히 이번 뮤지컬은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모든 출연진을 다인종 다국적으로 구성했을 뿐 아니라, 록 · 펑키 · 재즈 · 한국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고루 섞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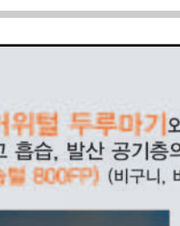
현재 공연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10월 4일 오후 6시 후원의 밤 행사(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 △10월 22일 오후 7시 시사회 및 워크샵(맨하탄 뉴욕대학원) 일정은 확정됐다. 추후 후원금 규모에 따라 공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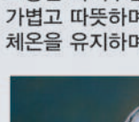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8만원
색상선택 M/L/XL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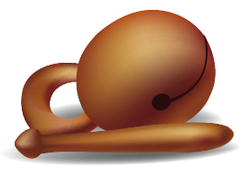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 금강명최승왕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 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감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 / 현미누룽지 270g, 150g / 보리와 현미 누룽지 / 병아리콩 현미누룽지

사주핵심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사주학 제10기
• 교육과목 : 사주학,매화역수,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이론 정립이 안되신 분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본인이 궁금한 사주를 즉석에서 풀이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정인역학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성불사 주지)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스님을 찾습니다
효천(曉天)스님
어디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소납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보각
010-2458-0379

출가 1-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배워야 산다
비법 + 명리 + 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전)
010-5209-74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 본원사)
010-3593-455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마이크 설치 에 대한 공사 안내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7212-2198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비구니 주지 스님
모십니다
– 포교원 운영 경험 많으신 분
– 노원구 수락산 입구
010-6874-3789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 받아야 한다.

- 증일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도심속의 넓은 사찰 ◀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3,7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 아름다운 대사찰 ◀
- 위치 : 부산근교
- 총부지 : 3,700여평, 주차장5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2평(목조 와가건물 8동)
- 명부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채, 대종각, 대법고
- 양도가액 : 30억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경기도 안성 사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
- 법당 뒷편이 산이며 조용하고 아늑함 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하심
- 양도가액 : 2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인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양도 : 7억8천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대지 : 45평
◎ 인법당 : 60평
◎ 요사 : 20평
◎ 양도 : 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금정산 자락
- 토지 : 79평 (남향 뒤는 산)
- 자리 좋은 암자
- 건물 : 법당 23평, 요사채 24평, 산신각
- 양도가 : 2억 1천만 인수 (은행 1억 5천만)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중주사찰(급)안내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등
- 토지 2,300㎡, 뒷편은 산
- 교통편리하고, 조용하며 남향임
- 현 운영 성업중이나 스님께서 연로하심
- 가액 : 3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 동림동 새고개 2길 47
- 대지 30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 답사후 절충

011-9551-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건물
- 대웅전 15평
-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 3천

010-6628-8271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절충가능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499-300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일월산
- 자락이 아담한 곳, 1급수 청정지역 앞마당 계곡물 흐르고 산기운이 솟는자리
- 땅 500평 법당자리 토목공사 완료, 20평 허가
- 요사채30평, 현대식 목조건물 완공 2년반
- 밭 2필 500평, 개인사정 급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여천동
- 평수 : 1층 약 70평
- 법당 : 완전구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9880-2617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8억 5천 (주인직접)

010-4130-0606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성내 2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 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법당외에 방4개
- 주위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및 후불탱화, 신장 탱화 인수시에는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보 500만원,월세 50만원

010-6667-8819
010-9087-481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 3층 건물중 2층 약 80평
- 방 5개(주방,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교통편리
- 가액 : 보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4805-59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소불 108,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 1, 냉장고 1, 즉시법회 가능, 주차 1
- 가액: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583-1235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 버스 혼통 대로변 정류소 앞
- 3층건물3층, 32평(실평수)
- 옥상단독사용, 시설완비(올수리)
- 철학하시는분 유망 신도카드와전화번호 드리고감
- 보증금1천만, 월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704-136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387-676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권리금 없음

010-2575-9876
010-9129-5976

사 찰 안 내

- 위치 : 율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 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 : 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 통도사 부근
- 법당 10평(삼존불, 신중, 영단)
- 요사 약 23평, 방3, 거실, 주방 주차장 크게 사용할 수 있음
- 비구니, 보살, 스님, 법사, 철학원 적합
- 공찰 소임관계 급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300만, 월25만 시설비 2,800만(절충가능)

010-5298-7357

사 찰 안 내

-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 대지 270평, 법당 17평(목족신축) 요사채 약 40평, 군부지 약 400평 사용함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인직접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생리 사찰
- 대지 513평
- 계획관리 위치좋음
- 가액 : 2억 1천만원

010-6341-3477

사찰,암자,선방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평수 : 약 2,300평 양도가 평당
- 지목 : 계획관리지역 + 보존임야
- 특징 : 조용하고, 전망과 조망이 좋고 투자성으로 매우 좋습니다.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저수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최고의 명당터
[사찰] ●1층 30평 천불상 관음궁전
●2층 25평 삼존불 및 지장보살 소불 130불 요사채 45평(황토방1, 큰방3
[요양원] ●1층 90평, 2층 90평 입소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
- 가액 : 17억 5천
- 월수입 약 4천만원(원장 건강상 급 양도)

010-9567-0813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8천만원

010-8562-4480

황토전원주택(매도)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29-24(억현리 746번지)
- 울주군 석남사 인근, 접근성 최고
- 대지 270평, 건평 59평 (정자3평 포함)
- 2세대 거주토록 건축(현관 출입문 각각설치),태양광 2기 설치, 조경 및 텃밭 조성
- 가액 : 5.3억

010-3585-4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스님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여주시 대신면 송촌 2길 157-47
- 교통 : 중부내륙고속 -북여주IC 에서 8㎞, 제2영동고속-대신IC에서 2㎞
- 부지 300평, 건물 120평(방사4), 법당 40평, 요사 60평 외 20평 계 : 400평(토지)
- 가액 : 3억 5천 (절충가능)

010-2393-96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도심 암자 안내

- 위치 : 부산 부암동
- 현재 운영중
- 법당 평수 20평, 공양간, 요사채 마당, 스님 열반으로 양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보 1,6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무

010-2575-22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독채, 한옥, 법당 2개
- 교통 편리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 보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6758-66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 종교용지 200평
- 요사 : 대 130평
- 농지 : 100평
- 법당 목조 25평, 요사 5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만원

033-762-2494
010-8731-14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 평수: 3층 건물중 2층,46평
- 법당 : 완전구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불사관계로 급양도함

010-5451-605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 평수 27평
- 삼존불, 후불탱화, 칠성탱화,
- 완벽한 법당으로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전세 300만원, 월 32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7502-00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요지)
- 3층건물의 3층
- 법당, 공양간 약 60평
- 깨끗한 시설 완벽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신설공사비) 1800만원 (절충)

010-358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 대지 약 380평
- 건물 60평(법당: 42평, 요사채 18평)
- 위치 최상, 부동산 업자 사절
- 주인보살 30년운영
- 건강상이유 급 양도함
- 가액: 5억 → 4억

010-9800-7575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 ('긍정심리학스쿨' 대표)

〈4〉 성찰하는 습관 ㊦

스트레스 극복하면 '뉴 월드' 열린다



힘들 때 손잡아 준 '서포터'

이번에는 과거의 역경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은 O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기 8년 전, O 씨는 직원이 네 명뿐인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과 맺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거래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작은 회사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세상을 뜨는 변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극에 O 씨는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자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와락 밀려들었지요.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우리의 정신은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심리적 · 감정적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켜 현실에 일시적으로 적응하려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충격이 지나간 뒤 어떤 사건의 앞뒤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세상사에 관심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쇼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심하면 불안과 두통, 불면, 악몽 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O 씨는 사장님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미래 스트레스'를 안은 채 회사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장님의 죽음에 이은 두 번째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 즉 '미래 스트레스'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성가신 문제입니다.

O 씨는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위기에 빠진 O 씨를 구해낸 것은 사장님이 남긴 특별한 '유산'이었습니다. 금전적인 유산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외 '서포터'라는 인적 자산이었지요.

사장님은 사외의 여러 인사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면서 회사에 남겨진 사원들은 서포터를 얻게 됐습니다.

O 씨의 회사는 전문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사였는데, 사외 서포터들은 책을 저술한 대학 교수나 다른 업계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출판 업무에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일이 있거든 언제라도 말해주게나"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곤 했습니다.

차기 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사외 서포터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노라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며 O 씨는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직을 권유받았을 때는 '한번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을 수 있었지요. O 씨의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성장할 기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몇 가지 심리적 · 정신적 장애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경을 겪은 후에 오히려 심리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성장(PTG, Post Traumatic Growth)'이라고 합니다.

외상 후 성장 연구의 일인자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리처드 테데쉬(Richard G. Tedeschi) 박사는 "외상 후 성장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 체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외상 후 성장으로 인한 변화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사소한 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고마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둘째, 대인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셋째, 내면이 강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큰 위기를 극복해낸 뒤에는 자신감이 매우 상승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O 씨의 사례처럼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출구 보이지 않아 더 심각 그러나 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력 강화시킬 수도 있어 대인관계 변화 뿐 아니라 삶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돼"

외상 후 성장은 '역경을 겪은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힘든 경험을 일부러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은 일부이며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견디며 싸워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O 씨는 감정회복습관 트레이닝 과정 중 일곱 번째 테크닉인 '힘들었던 과거의 체험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신력이 강해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친절한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다.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 덕분에 앞날에 대한 불안을 치유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속박서 벗어나, 유연하게 살자

P 씨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한 지 4년 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그전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녔는데,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 신규 사업팀에 입사할 기회가 생겨 이직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자칫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안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는 업무 특성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성과를 못 낸 채 끝나버리지는 않겠지?' 하는 불안이 상주하고 있었지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나도 하면 된다'고 북돋아줄 수 있는 원동력도 필요합니다. 이때 감정회복근육을 단련해주는 '자기 효능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지금의 자리에서는 작은 성공을 체험할 수도 없고, 롤 모델도 찾을 수도 없으며, 의욕을 북돋아주는 분위기를 형성 할 수도 없다면, 그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성장에 필요한 '자기 효능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형 인간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일수록 지금 본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법입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그 직장에서 3년은 버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는 격언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인내심을 발휘할 가치가 있지만, 애초의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직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회복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옮길 수 있는 유연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하드 워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디 '하드 워커'로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사하면서 일하는 도중에 업무상의 트러블이나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분노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며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집중해서 치열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장벽입니다. 실패나 역경을 경험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다시 새로운 역경을 불러와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감정회복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감정회복습관을 들이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떠안고 혼자 푸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업무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끝〉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 (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 · 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산문의 저녁

산문(山門)의 하늘 위로 저녁이 온다. 노을빛에 물든 구름 앞에 모든 시비(是非)는 우스워졌나니, 문자만을 믿을 일도 아니요. 또, 조사(祖師)의 노래에만 기댈 일도 아니리라. 누구도 구름의 빛깔을 이야기할 수 없음이니 주장자와 빗자루가 그 이름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숲에는 산새가 살고 산문엔 선사가 사는가. 이 저녁이 지나가면 알 수 있으리.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시계, 스마트 워치 (下)

"가질 수 없는 것도 때론 삶의 힘이 돼"

지희네 집에서는 늘 달콤한 냄새가 났다. 파스텔 빛깔의 솜사탕 같은 냄새. 지희의 생일파티 준비를 하느라 집안은 어수선했다. 언니와 오빠는 풍선을 불고, 엄마는 세모 모양 펠트로 가랜드를 만들고 있었다.

"어이, 막내딸. 와서 이것 좀 봐봐."

지희 아빠가 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빗물이 스며들어 누렇게 얼룩진 지희의 방을 핑크색 방수페인트로 칠하고, 벽이 너무 휑하다며 아빠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빠를 제외한 모두가 말렸지만.

"이거 뭐 같아?"

빨간색의 찌그러진 동그라미 아래에 실처럼 늘어진 초록. 무얼까. 풍선? 지수는 다른 식구들의 표정을 살폈다. 절대 알아맞히지 못할 거라는 확신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풍선은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풍선처럼 보이니까.

"글쎄요……. 꽃……일까요?"

"우하하하하! 역시 막내딸은 안목이 있다니까. 다들 풍선처럼 보인다지 뭐야. 아니 이게 어딜 봐서 풍선이라는 거지? 이건 양귀비꽃이야.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이지. 우리 지희처럼."

지희네는 가족의 생일에 모두가 모여 파티를 했다. 벌써 몇 해째 쓰고 있는 때 묻은 가랜드를 걸어놓고, 수술이 다 떨어진 고깔모자를 쓰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 후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는 초라한 생일파티였지만, 지수는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좋았다.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느껴지는 온기가 좋았다.

"코끼리들은 어떻게 뽀뽀를 하는지 알아?"

아빠가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졌다. 썰렁한 농담은 지희네 아빠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코, 끼리."

아빠 혼자서 묻고, 답하고, 우하하 웃음을 터트렸다. 오빠는 어깨를 으쓱하고, 언니는 고개를 젓고, 엄마는 입술을 다문 채 빙긋이 웃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케이크 위에 열두 개의 초가 꽂혔다. 작은 촛불이 식구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축가를 부르고, 지희가 소원을 빈 후 촛불을 끄고, 폭죽이 터졌다. 지희가 선물 상자를 풀었다. 지수가 준비한 선물은 스마트 워치였다.

"이렇게 비싼 걸 그냥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지희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희가 엄마께 받은 시계를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 워치가 그 시계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희에게 선물한 스마트 워치는 아빠가 택배로 보내온 추석 선물이었다. 지난 6월, 지수의 생일에 보내온 스마트 워치와 브랜드와 모델명, 색깔까지 똑같은 것이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지수는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얼마나 바쁘고 무관심하면 딸에게 무엇을 선물했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는 걸까.

"고마워, 지수야. 정말 마음에 쏙 들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희는 금세 눈물을 글썽였다.



그림 · 강병호

"엄마, 시계 잃어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정말 괜찮아."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건데……. 제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엄마가 지희를 꼭 안고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시계 같은 건 없어져도 괜찮아. 그때의 추억은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엄마 속엔 곰 한 마리가 산다. 컴컴한 굴속에서 온순하게 잠을 자던 곰은 이따금 깨어나 짐승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다. 엄마를, 엄마의 주변을 엉망으로 흔들어놓는다. 엄마의 방문을 열자 향수 냄새에 숨이 막혀왔다. 방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밀폐된 방에 고여 있는 지독한 향수 냄새만이 곰이 부린 난동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엄마에게 생긴 커다란 구멍 속에 곰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간 후부터였을까. 아니면 엄마의 곰을 견디지 못하고 아빠가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걸까.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지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지수는 상자 앞에 우두커니 앉았다. 지수가 훔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아니었다. 이 물건 속에 깃든 추억, 그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끈끈한 가족의 온기였다.

지수는 아빠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한 자 한 자 지워나갔다.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아빠에게 들었던 가장 무서웠던 말. 그 말 속에는 엄마와 엄마를 둘러싼 모든 것, 지수 자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을 다시 듣게 될까 봐 지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늦은 밤,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는 지수를 보고 지희 엄마는 깜짝 놀랐다. 마당의 벤치에 앉아서 지희 엄마가 끓여준 핫초코를 마시다가 지수는 울음을 터트렸다. 울음 사이사이에 지수는 가슴을 조여 오는 것들을 쏟아놓았다. 집을 나간 아빠와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엄마,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곰과 지수가 훔치고 싶었지만 훔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희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전 그냥…….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지희의 엄마, 지희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지희 엄마의 따뜻한 팔이 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참 재미있지 않니? 지희는 항상 너를 부러워하거든. 네가 지희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건 정말 복된 거야. 지난번에 지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어. 쌀은커녕 라면도 살 돈이 없었지. 그래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밀가루를 샀단다. 라면 한 개 값이면 밀가루로는 온 식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칼국수를 해먹고, 저녁에는 수제비를 해먹었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텅 빈 냉장고를 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다 찢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단다. 그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지."

지수가 울음을 그치고 난 후에도 지희 엄마는 지수의 어깨를 계속 토닥였다. 하늘에서 별들이 내려와 지수의 어깨 위에 입맞춤하고 가는 것 같았다. 지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수는 어깨를 두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끝〉

제 4회 사하구민을 위한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
사하구 불자님들을 위한 '함께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천마산 약수사 (감천동)
• 주 최 : 부산시 사하구 불교연합회
사하구불교연합회 신도회
• 후 원 : 사하구청, 사하경찰서
• 문 의 : ☎ 051-291-9681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대행 스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문 해년마다 지내는 추석이지만 올해 추석에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이렇듯 이 마음도리를 만나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이 감사했고, 저를 이렇게 수승한 공부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추석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뜻을 계승해 나가야 할는지요.

답변 여러분께서 8월 추석을 지내셨습니다. 8월 추석을 지내신 뜻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음미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8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으로 밥을 지어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이 지수화풍이나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그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에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다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없으면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하는데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쐬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일체 만물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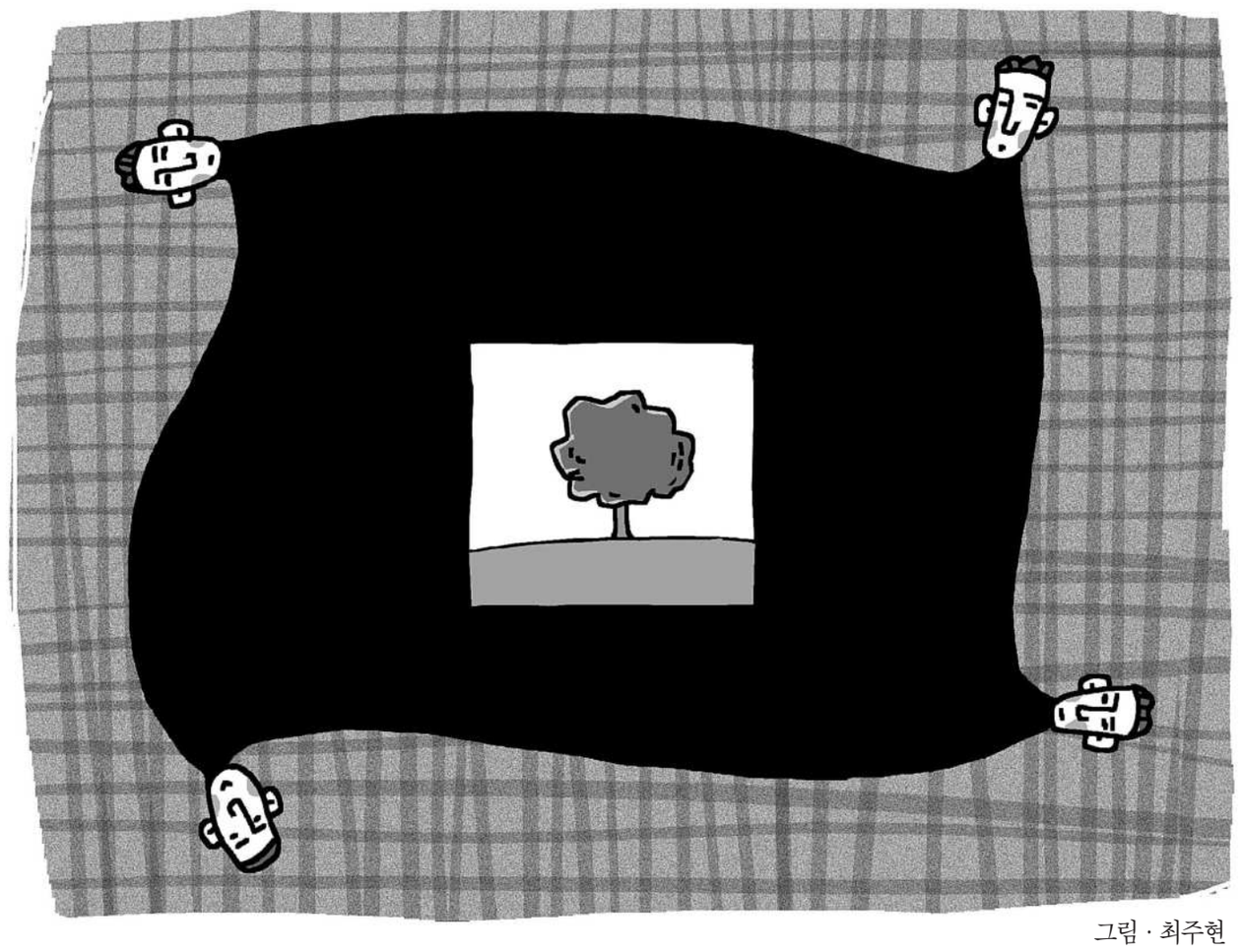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망한 거는 또 타의에 의해서 망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천당,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모습을 지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박 씨를 심었으면 박이 나죠. 박 싹이 나고 박이 또 열리죠. 그러나 마음의 불씨라는 것은, 마음의 씨라는 것은 박 씨도 아니요 사람 씨도 아니요, 이것 씨도 아니요 저것 씨도 아닌 자체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로 모습을 들고 나오고, 바로 현실로 모든 생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 우리가 한순간에 깨달을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법력 높으신 스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변 우리는 여러 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진실하게 믿고, 일체 만법이 다 그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안에다 물을 줘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듯이 벌써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둘로 보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곧 죽어도 옳은 거는 옳게 안으로 놓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요다음 생에….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은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바빠서 절에 못 온다, 뭐,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내 집 아이가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데 왜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는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그게…,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은 해도 괜찮건만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 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옵니다. 그 점을 자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

질문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하고 통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해결 방법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통일을 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보지마는, 우주 삼라만상에서 다 통례가 있습

☞ 26면으로 계속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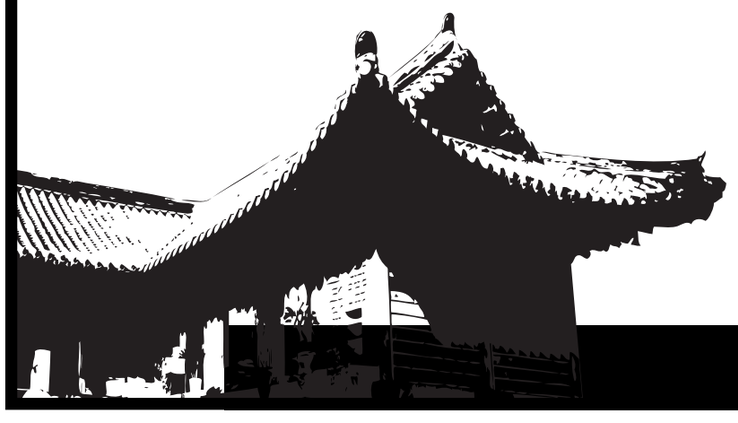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많이 팽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3차 대전이 벌어질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그러면 이쪽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리는 없으니까 저쪽을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몇십 년 전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우리 애들더러도 "어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죠.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한 뜻이라면 우주간하고도 통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통신이 돼서 이 만물하고도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소한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어떻게 잡는다 이러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는 일에 대한 법 줄기를 갖다가 거기로 대죠, 모자라는 거를 채우면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미친 사람으로 됩니다, 이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 돈 사람으로 생각되게끔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빨리 서둘러서 꼭 해야 된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집니다. 모두 공해로 인해서 생긴다고도 하고, 아니 1/3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죠. 그렇다면 이 모두가 지금 원기 그 자체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지금.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압축이 되니까, 얼음이 만약에 다 녹는다고 해 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마음 이 자리밖에는 우주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 거기밖에는…. 나는 여러분처럼 잘 배우지 못해서 용어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딴 사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또 부르려니 입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금방 나는 이름을 불렀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또. 어저껜 금방 그 말을 "야, 자꾸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뭐가 가라앉는다 하는 소리를 금방 했는데도 그냥 또 까만 거예요. 그렇게 까매요. 그런데 뜻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새 발의 피다. 이것이 앞뒤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이건 보이지 않는 무의 법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것이 영의 소행이라 하는데

질문 제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마음공부를 해 나가면서 한동안 설사가 멎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설사가 계속돼서 수시로 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영의 소행이라는 소리를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이날까지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생이에요, 공생. 공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자 공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꼭 명심해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하고 사는구나. 이 몸에서 세포 하나의 생명체가 떨어져 있는 게 없구나. 다 더불어서 같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되는구나.' 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산 사람이나 둘이 아니게 똑같이 섬기세요, 마음으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모두가 공생으로서의 공심으로 하세요. 그럼 움죽거리는 게 죽은 영가들도 공용으로 움죽거릴 거고 집의 마음이 공용으로 움죽거린다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공용으로 다 움죽거려서 어떤 거든지 요만한 거 하나 걸림이 없어요. 새로 바뀌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또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 살아나온 그 차원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댁이 공법을 쓰니까 그냥 공법대로 하나로 거기 붙어서 돌아가는 게 없이 그냥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살아요.

보림에 대해서

질문 돈오돈수의 입장에서는 보림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돈오점수의 입장에서는 돈오 이후에 보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큰스님께서는 놓는 것도 보림이라고 하셨는데 보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속의 중생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의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 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둘 아니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나서 너풀거려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 군데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거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지금 텔레비전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탤런트라면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라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놨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륙도 같은 데 뭐,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아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 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둘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둘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둘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단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트여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죠.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든 없든 그대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느냐? 얻었다면 내놔 봐라." 이렇게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바쁩니다, 지금.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어 갑니다. 그래 자꾸 그것을,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놔야 하겠죠. 그리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15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는 법 없죠. 여러 애들 중에도 그냥 막 악을 쓰고 우는 어린애를 얼른 안아서 젖을 주게 돼 있거든요.

배 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에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 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옵니다.



불자 세상보기

공정한 경쟁을 가르치자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국토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여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것에 대하여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원동력을 한글의 우수성에 따른 국민이 지식정보의 습득이 쉽게 이루어진 것과 컴퓨터 교육과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시간(속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진화의 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훌륭한 교육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게 발탁했다. 그 인재들이 국가 발전의 동량이 되였고, 학문과 교사를 존중하고 책(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 3위)을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이다.

과거시험은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관리하는 기관과 제도가 있어 엄정하게 실시하였다. 그 전통은 현재도 계승되고 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자제들이 서울대학교에 권력과 돈의 힘으로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한 제도와 양심과 지성을 겸비한 교수들이 있다. 근래에 서울대학교 총장의 딸이 수시 면접점수에서 0.1점이 부족해서 탈락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나라로 도약 발전시키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믿는다. 나라의 공무원이나 교사,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국민의 표상이다. 사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S여고에서 명문대 수시 전형을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성적 우수학생 10위권의 학생을 졸업할 때가지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적을 몰아주는 생활기록부를 수정 조작한 사건은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이 학교는 2015년 6월 진학일보에 '면접관이 만나보고 싶은 학생의 보고, 광주 S여고'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교장은 "우리 학교의 저력은 선생님들의 남다른 열정과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가 인성과 영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미션스쿨이란 것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을 너무도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최고의 입시 명문 고등학교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작하고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학교만 진학시키는 학교교육을 하고 있다. 모든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 보고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최선을 다여 노력하여 당당하게 경쟁해서 패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승자와 패자가 함께 손을 잡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반칙과 변칙을 배우고 그것을 정당화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인성교육의 7대 덕목 가운데 첫 번째 덕목이 정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영역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덕목이 정직이다. 정직이 바탕이 되어 이웃에 대한 신용, 약속, 의리, 준법, 책임 등의 윤리가 생겨난다.

〈유마경 불국품〉에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直心是道場)"라는 말이 있다. 곧은(바른) 마음이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뜻이다. 서산대사의 '청허당집'에 "밝은 마음이 문수보살이고, 곧은 마음이 아미타부처님이다(明心是文殊 直心是彌陀)"라고 하였다.

이번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전반에 걸쳐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자.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불교는 친구와 함께 가는 공부, 천천히 행복을 생각하는 교육,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 인성교육 등을 실천해 보자.

발언대

경주 강진의 화두

한국이 지진안전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경주 지진으로 인해 드러났다. 지진피해는 복구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는 많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앞으로 불교계가 신경써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지진대비는 작은 것부터"



도진영
경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지진이 잦게 오더라도 이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경 정부에 의해 야외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R&D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흡했다. 이는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설마 일어날까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교문화재 중 석탑과 석등 등은 야외에 있어 특별한 내진장치를 해야 지진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찰 내부에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재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찰에서는 성보문화재를 낚시줄과 같은 투명한 줄로 묶어 놓는다.

이와 함께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것만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진 대책을 신중히 세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절차를 면밀히 다져 집행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민간에서는 사소한 것부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문화재 내진, 방향 정해야"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현재 문화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석탑의 경우를 보면 통돌로 되어 있는 석탑은 그나마 나을 것이지만 다보탑과 같이 짜 맞춘 탑과 모전탑 등은 조금 더 큰 지진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나 법주사 미륵대불과 같이 상단부에 많은 무게가 쏠린 입상 형태의 불상도 지진에 취약하다.

여기에 사찰을 포함한 한옥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이 태반이다. 사찰 구조를 보면 구조해석학적으로 접합부의 경구 상태가 강절이 아니기에 변형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기와를 얹는 지붕의 무게가 무겁고, 대부분이 월대 위에 석축으로 된 기단을 쌓고,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반교란에 취약하다.

문제는 현재 정부와 불교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 내진장치를 할 지에 대한 논의나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건축방식이 틀리기에 우리 만의 방식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

"선조보다, 지진 인식 떨어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경주 지진에서도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인데, 탑 몇 개 무너지면 어때'라는 의견을 보았다. 이러한 인식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문화재는 옛 선조들의 사상과 문화를 반영한 그 나라,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선조들은 이젠 문화재가 되어버린 당시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였다. 이러한 선조들이 있음에도 현재 우리는 지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떨어진다.

특히 문화유산이 될 만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기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내진장치 설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일본에는 우리와 다르게 문화재에 내진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도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 노출돼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만을 돌아본다면 먼저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부터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불교문화재는 불교의 문화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社說

문화재 내진설비에 관심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4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건축법 상 내진설계를 의무 대상에 사찰을 포함한 한옥과 문화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사찰은 대부분이 돌로 기단을 쌓아 그 위에 건축된 구조를 띄고 있어 지진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불교계는 다양한 내진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대웅전 뒤편에 철골구조를 세우는가 하면 목재를 덧대 진동을 막기도 한다. 참배객들을 고려해 노출이 잦은 곳에는 토벽 속에 합판을 넣거나, 목재와 비슷해 보이는 철골구조를 쓰기도 한다.

이어 불상과 탱화 등 동산 문화재도 지진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끈 등을 활용해 고정시키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다소 외관이 상하더라도 모든 것은 안전, 그리고 불교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내진장치의 방향조차 설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 첫째가 안전이며, 둘째가 문화유산의 보존이다.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원칙을 세운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최근 지진으로 인해 성당을 비롯한 문화재가 파괴되며 원칙 수정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원형 상태에서 무너지면 새로 복원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중 원형 그대로 복원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군다나 사찰과 불상 등은 구조가 약하면 그 안의 스님과 참배객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불교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진설비를 도입해 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귀중한 성보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광동학원 설립 70주년에 부쳐

동국학원과 더불어 불교를 대표하는 종립학원인 광동학원이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70년이라는 긴 역사만큼 광동학원은 경기 북부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광동학원은 광복 이듬해인 1964년 운허 스님이 현재 봉선사에 '광동초급중학교(현 광동중학교)'를 세우면서 시작됐다.

1951년 전란으로 학교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건물은 불타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는 다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지에 따라 천막을 치고 수업을 이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광동학원은 발전을 거듭했다.

현재 광동학원은 남양주 광동고·의정부 광동고·광동중 총 3개 학교로 구성돼 있다.

70년 동안 배출한 졸업생은 총 4만2883명으로 매년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5%에 이른다. 불교종립학교로서 지역 명문 사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던 것은 교직원·학생·동문이 하나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은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광동학원은 오는 10월 4~10일 건학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동학원의 역사를 담은 사진 및 영상전시회 뿐만 아니라 설립자 운허 스님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로 마련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광동학원을 통해 배출된 4만여 명의 인재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불교인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것이다. 광동학원이 다가올 100주년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과 불교 인재양성에 전력투구해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기 3개월 과정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모집
① 염불·사물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8시
② 바라·작법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사)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 천수바라무 연수원
총무스님 010-5511-7000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❶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❷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❸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 (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점안의식, 각종 파불의식, 각종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깨달음 공개강좌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예약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출입할수 없습니다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일정

〈2016년〉

1차 공개강좌 : 주제 : 암은 깨달음과 무슨관계인가?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3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 해탈문
일시 : 2016년 8월31일 수요일 오후 3시

3차 공개강좌 : 주제:법화경과 깨달음
일시: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업(業)과의 전쟁
일시: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2017년〉

5차 공개강좌 : 주제 : 입법계품의 지혜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살과 깨달음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유와 평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선(禪)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53 선지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달마와 원효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13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센터의 수행법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4차 공개강좌 : 주제 : 암과 사리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5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왜 오는가?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비와 사랑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참고 : 각 회차별 공개강좌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목으로 고통을 만들어 왔고
현재도 안목이 진귀와는 다르며
앞으로 또 다른 안목의 고통멘토가
궁금하다면...?

● 진귀(眞歸)방장 과의 친견 ?

1. 진귀는 불가사의한 수행자로서 대다수 범부들의 안목인 종교,종단, 문중, 학력, 등등 유위적 분별심으로는 진귀 방장의 가치와 수행경계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오며 더욱이 이 세상의 기존 수행법들의 식견(識見)과 지견(知見)로는 믿고 받아 지니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백천만겁난조우의 비유와 같은 수행자 이다.
2. 2016년 현재, 진귀방장께서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및 선수행 등등을 일체 애써 수행치 않으면서도 늘 평온함이 물러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깨달음논강>과 붓다의 깨달음 세계의 <창조적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과 취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 배(10,000배 : 1:1 친견시만 해당됩니다.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만 배 확인증을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센터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